

2012년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기사 모음집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

2012년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기사 모음집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는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으로 활동한 8명의 통신원들이 작성한 기사 중
33편을 엄선해 묶은 책자입니다.

Publish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460 Park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Tel: 212 759 9550
Fax: 212 688 8640
info@koreanculture.org
www.koreanculture.org

Copyright © 2013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ver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Illustration: Jaekyung Jeong(정재경) · Eugene Pi(피유진)

강남 스타일 여세 몰아 이제는 K-style
신 한류 전파의 주역,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Message from the Director

2012년은 한국 문화계가 전세계적인 K-pop 열풍에 힘입어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한 해였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2012 뉴욕 K-pop 페스티벌'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고, 전 참가자가 함께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 군무를 선보이는 등 미국의 심장, 뉴욕도 K-pop의 신명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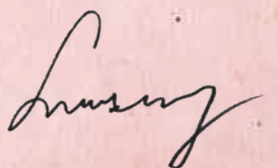
이에 발맞추어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 일원의 공립학교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수업의 일환으로 선보인 '스팟라이트 코리아'는 동포 2세대에게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타민족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해 마련된 <오픈스테이지>, <Call For Artists 2012> 등과 같은 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2011년 특별히 구성된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8명의 문화통신원을 선발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화통신원은 공연, 전시, 문화행사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취재하고, 작가, 예술가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뉴욕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문화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지난 일 년간 뉴욕에서 일어났던 한국문화계 소식을 돌아보고, 이 기사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뉴욕 속 한국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재된 글과 사진을 모아 두 번째 기사집 <Korean Culture Navigation in NY>을 발간합니다.

한 해 동안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덟 명의 문화통신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뉴욕한국문화원은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한국문화원 원장
이우성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2012 KCSNY's Cultural Reporters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욕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관련 행사와 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생들 중 선발된 8명의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은 그동안 뉴욕 현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 문화원 홈페이지(<http://www.koreanculture.org>) 문화통신원 코너(KCSNY's Cultural Reporters)에 게재해 왔습니다.

제2기 문화통신원들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여간 전시,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진 각종 한국문화 행사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한국문화 홍보 활성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기사 모음집 발간과 함께 오는 5월부터 활동할 제3기 문화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제3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모집

이호성 Columbia University, 도시계획 석사 재학
서울컬처노믹스 네티터 (서울시 문화행사 취재)
서울시민 홍보대사 (외국인 유학생 한강 르네상스 투어 진행)

Regina Kim Johns Hopkins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 Studies 석사 졸업
Culture & Arts Division Intern
Edited proposal to UNESCO to buil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 in Korea

구도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
West 9기

백지은 New York University, Liberal studies / Psychology 재학
제 18기 조선일보 인턴 기자

이화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윤혜수 연세대학교 사학, 정치외교학과 재학
연세토론회에서 활동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즈

김두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재학
한양문화사랑 (한양대학교 문화 서포터)
우리스타 방위대 2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저작권문화 선도 활동)

임승준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재학
한, 아세안 미디어 국제 캠프 한국 대표 참가
지식 경제부 주관 산업 디자인 매칭 공모전 수상
Team Korea Bros의 한국알리기 (미국 대륙횡단 및 한국알리기)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찾는 문화통신원은?

- 뉴욕현지에 재학중인 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 글쓰기, 사진, 동영상 등 미디어에 관심 많은 분
- 문화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분
-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
- 넘치는 아이디어와 발빠른 취재능력, 콘텐츠 제작에 자신있는 분

문화통신원만의 혜택!

- 문화통신원 취재 지원 및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화통신원 정식명함 발급
- 활동증명서 발급
- 통신원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가
-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이벤트 참가
- 우수통신원 선발 및 표창

인원 및 모집분야

- 선발인원: 10명
- 모집분야: 글 부문, 동영상 부문
- 활동기간: 2013년 5월 ~ 12월

지원방법 및 일정 문의

- 이메일: info@koreanculture.org
-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
- 전화: (212) 759-9550

Contents

Message from the Director	6
제2기 뉴욕한국문화원 문화통신원	8

Performing Arts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Kumho Art Hall Delivers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t the Lincoln Center	14	Regina Kim
한국의 향기로 뉴욕을 물들이다	16	이화영
The Kang Sisters Wow Audience in Flushing with Korean Drum and Dance Show	17	Regina Kim
Audience Goes Wild over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s Concert in 2012 Open Stage Series	20	Regina Kim
The Jingoo Lee Band Turns Korean Cultural Service Gallery into Live Jazz Club for One Unforgettable Evening	22	Regina Kim
A Magical Mix of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Rhythms and Electric Guitars	24	Regina Kim
An Audio-Visual Performance Group That Is Changing the Face of Live Music Performance	26	Regina Kim

Exhibitions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리뷰 및 작가 인터뷰	30	윤혜수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정연심 큐레이터와의 인터뷰	33	윤혜수
여섯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아키그램(Archigram)'	35	구도영
뉴욕 안의 또 다른 도시, <구름도시>	36	구도영
Traces of Life Photo Exhibit at The Korea Society Shows Korea's Recent Past from a Korean Perspective	38	Regina Kim
The Body in Languages New York-Berlin Exchange Exhibition Showcases Work of Several Talented, Avant-garde Korean Artists	40	Regina Kim
Gallery Ho <Operating System> 리뷰	44	윤혜수

Interviews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설치작가, 이동희	50	구도영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Press Conference with Actor Choi Min Sik	53	Regina Kim
Q&A with Secret Love Star Yoon Jin-Seo at the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55	Regina Kim
Interview with Eun-sun Jung, Award-Winning Gayageum Performer	57	Regina Kim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기	60	윤혜수
김영순 예술감독님의 인터뷰	62	김두리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광고, 현지의 반응은?	66	윤혜수
뉴욕현대미술관, 한인 스텝들에게 듣는 그들의 이야기	70	윤혜수

Events

한국의 태권도 타임스퀘어를 접수하다	76	구도영
Everyone Can Be an Artist at 5th Ave.	77	김두리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을 넘어 사찰음식	78	윤혜수
Korean Flavor Exposed with Angelo Sosa	80	이화영
제11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NYAFF): 최민식을 만나다	81	구도영
뉴욕의 또 다른 MoMA, MoMA PS1에서 펼쳐지는 한 여름 밤의 파티	82	김두리
Preview of the North American Premiere of the Hit Korean Movie, <i>The Client</i> (의뢰인)	84	Regina Kim
Preview of the Controversial Film <i>Unbowed</i> (부러진 화살)	85	Regina Kim
2012 NY K-pop Festival and Interview with American Idol Finalist Hee Jun Han	86	Regina Kim
The Power of Korean Food Revealed by Todd English: 한국 식자재 홍보행사 리뷰	89	윤혜수
지속적인 한류를 위하여: New York Fashion Week <Concept Korea> 리뷰	92	윤혜수



PERFORMING ARTS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Kumho Art Hall Delivers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t the Lincoln Center

By Regina Kim
June 14, 2012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On Thursday, June 7, an audience of all ages was treated to a special concert at the Lincoln Center given by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Kumho Art Hall. Formed in 2007 as Korea's first ensemble in residence,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Kumho Art Hall and its music director Dae Jin Kim, a renowned master pianist, moved and captivated the audience with a string of brilliant performances in Alice Tully Hall.

The program for the evening included Francis Poulenc's *Sextet for Wind Quintet and Piano in C Major*, Jean Françaix's *Dixtour for Wind Quintet and String Quintet*, and Antonín Dvořák's *Quintet in A Major for Piano and Strings, Op.81*. The ensemble's beautiful renditions of these pieces gave the audience a taste of the versatility and richness of these composers' styles, particularly for those listeners who might have been previously unfamiliar with the composers and their works.

The ensemble kicked off the program with Poulenc's *Sextet*, a multi-faceted piece with a deliberately cacophonous intro that grabbed the audience's attention from the start. The piece's rather

unconventional rhythms and alternating tempos could have been slightly jarring to the average listener unacquainted with Poulenc's works, but the ensemble played the piece so beautifully and flawlessly that the audience seemed fully absorbed by the music.

Next was Françaix's *Dixtour*, a richly textured composition that called for a great diversity of sounds generated by wind and string instruments. Throughout the piece, the wind and string instruments complemented each other very well, as if they were conducting their own musical conversation and were taking turns responding to each other. The ensemble somehow managed to convey the dissonance and complexity of the overall piece while sounding strangely harmonious at the same time.

Yet perhaps the audience's favorite was the ensemble's powerful performance of Dvořák's *Quintet in A Major for Piano and Strings*, which was so poignantly played that one could almost taste the music in the air. The exhilaratingly fast parts exhibited Dvořák's skill in building tension and suspense through the use of crescendos, and

the strings in particular were played with such emotion that they readily highlighted Dvořák's masterful manipulation of string instruments to sway the listener's feelings.

The concert garnered many positive reviews from the audience, which ranged from people who were entirely unfamiliar with the ensemble and their repertoire to people who had even worked with the artists before. Julie Kim, a middle-aged Korean member of the audience, remarked in Korean, "The concert was the best. Chamber music ensembles didn't exist in Korea when I left in 1979, but the Korean ensemble has developed a lot over the years." David Shin, another attendee of the concert, commented, "I was really surprised. I didn't know Koreans were so musically talented. They did really well." Taek Gi Lee, a piano student at Juilliard's Pre-College Division, said, "It was fantastic. The live sounds of the instruments were so beautiful. The piano parts were especially so beautiful that they made me want to cry." When asked how he would rate the concert overall, he replied, "It's the best concert I've seen in a while."

이영일의 <물들다> 한국의 향기로 뉴욕을 물들이다

글 · 이화영
2012년 7월 9일



주최: SINAЕ ARTS MANAGEMENT
공연단체: MOVEMENT FACTORY DANCE COMPANY
주관: SINAЕ ARTS MANAGEMENT, SALVATORE CAPEZIO THEATER
이영일: Movement Factory Dance Company의 대표인 이영일은 경북예술고등학교, 세종대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경기대학교 무용극학 석사를 마치고 공연예술학 박사과정 중인 이 시대의 춤꾼이다.
고정두: 세종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후, 일본 나고야 엑스포축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축제, 콜럼비아 이베로 축제 등에 참전하였으며 두바이, 멕시코, 마카오, 프랑크푸르트 등의 다수의 해외 초청공연을 한 동양화가이다.

지난 7월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독립무용가 프리랜서 1호'로 불리는 이영일씨의 <물들다(Be infected with)> 공연이 Salvatore Capezio Theater에서 열렸다. 본 공연은 현대무용과 한국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무용공연의 시작 직전에 고정두 작가가 그린 작품 위에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정두 작가는 공연장 바닥에 넓게 펼쳐진 한지 위에 라이브로 관객들 앞에서 동양화 한 폭을 그려내었다. 갓 완성되어서 물감이 덜 마른 그림 위에서 두 무용수들이 연기를 펼치는 이 공연은 단순한 무용공연이 아니라 행위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춤은 향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마치 두 남녀가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상징하듯, 고정두 작가는 두 갈래로 뺨은 나뭇가지를 닮은 한지 위에 그렸다. 그 위에는 흐드러지게 핀 빨간 꽃잎들로 나무를 치장하였다. 마치 공연장 가득 꽃들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연 시작 전에는 아름다운 하나의 수묵채색화에 지나지 않았던 그림이 무용가들의 등장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두 남녀 무용수들은 갈라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처음 만나고, 서로의 향기를 탐색한다. 춤과 그림에서 표현되는 향기는 바라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 향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두 남녀의 만남, 격렬한 사랑 그리고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안무는 그림에서 묻어 나오는 물감으로 인해 더욱 극적으로 보인다. 붉은색과 검정색 물감은 무용수들의 팔, 다리, 얼굴 등 전신에 묻

어 마치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은 듯한 느낌을 표현해낸다. 바닥의 그림 또한 두 주인공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두 갈래로 펼쳐져 있던 나무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하나로 엉겨버린다. 마치 그림과 무용수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향기로 물들어 버린 듯. 안무가 이영일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도 춤에서 만들어지는 향기였다.

'춤 한류를 꿈꾼다'

고정두 작가의 동양화 작품이 공연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점을 넘어서서 먹색, 적색, 흰색으로 구성된 색의 조합과 선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안무는 한국적 느낌을 전달하기에 완벽한 조합이었다. 또한 다소 간결하다고 볼 수 있었던 무대의상과 조명을 통해서 단백하고 가슴 먹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공연은 세계 무대에서 한류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막연히 한국의 전통 문물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이영일씨의 이번 공연은 앞으로 수많은 한류를 전달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The Kang Sisters Wow Audience in Flushing with Korean Drum and Dance Show

By Regina Kim
September 17, 2012



Yusun (left) and Hosun Kang in *Hwasunmu* (Photo by Danny Jung)

On Saturday, September 8, about 120 people gathered at the Flushing Town Hall for a magical evening of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music performed by member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Institute of New York (KTMDI) and led by sisters Yusun Kang and Hosun Kang. Titled "Yusun and Hosun Kang's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Beyond," the show featured six unique performances that showcased the beauty, depth, and breadth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ance. The program opened with an artistic performance of *Hwasunmu* (화선무), a dance created in 1978 by the Kang sisters' dance teacher, Yi Jo Lim,

who drew his inspiration for the piece from a 17th-century painting titled *Pungryudo* (풍류도). True to its name ("Hwa" meaning flower and "sun" meaning fan), the dance portrayed the beauty and elegance of Chosun-era Korea, with performers posing in colorful traditional Korean dresses (*hanbok*) as Yusun and Hosun Kang danced gracefully with floral fans.



Members of KTMDI performing “Heartbeat for World Peace” (Photo by Regina Kim)

The next performance was a soulful *haegeum* solo piece performed by Hee Jung Han with Indang Kim accompanying her on the *janggu*. (*Haegeum* is a traditional Korean fiddle similar to the Chinese huqin. *Janggu* is a Korean hourglass-shaped drum.)

Then Yusun Kang, dressed in all-white, delivered an emotionally-charged performance of *Salpuri Chum* (살풀이춤), a type of dance noted for its alternating contracting and releasing movements that serve to convey grace and intense emotion simultaneously.

Hosun Kang, the younger sister of Yusun, took to the stage with her dazzling rendition of *Jinju Gyobang Gutguri* (진주교방 굿거리), a 900-year-old dance originating from the Jinju region of South Korea’s Gyeongsang Province. This was followed by another solo performance by Yusun,

who this time did a lively drum dance called *Jindo Buk Chum* (진도 북춤), a piece that hails from a city named Jindo in South Korea’s Jeolla Province.

But the highlight of the show came at the end, when all the participating performers from KTMDI appeared on stage for the grand finale: an upbeat and literally heart-pounding performance of “Heartbeat for World Peace” (평화의 대북소리), a dynamic percussion piece composed by 71-year-old Ms. Jung Sook Moon. For this last piece, the drummers used Korean drums of various sizes along with an intricate mix of drumming styles and rhythms to convey the “music of the skies”—specifically, the forces that the clouds, rain, wind, and thunder exert on our lives on earth.

During the reception after the show, many members of the audience were raving about the performances. “It

was great—the dancing was great, the drums were much more than I expected. The whole performance was very polished,” said Phil Robinson, who lives in the Whitestone neighborhood of Queens, NY. His friend Jung Ho Hong echoed his sentiments, while adding, “It’s surreal to see a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in New York. It’s my first time seeing something like this in New York. I especially liked the *Salpuri Chum* and the grand finale.” Franklin Bethea from the Bronx remarked, “It was good. I really liked the last two pieces because they were livelier. I wish I could’ve done it with them!” Cathy Radvansky, who lives in Bayside, seemed particularly happy to give her thoughts about the evening’s performers: “They were really amazing. They always had a nice smile and such good unison—they were so synchronized! It’s amazing for all the drummers to do so well, and I thought the costumes were very pretty.”

I tried to interview the Kang sisters after their show, but they were constantly swarmed by their fans and friends throughout the reception, so I had to resort to asking them my questions via email. Hosun Kang kindly wrote some interesting things about her and her sister and their work in the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Here’s what she had to say:

How did it feel to hold a joint dance show with your sister in New York?

I’ve performed on stage with my sister so many times for the past ten years, but this was the first time we held a show featuring both of our names in the show’s title. We were able to do our very own show thanks to a grant we received from the Queens Council on the Arts. I am just so very happy and pleased that we successfully completed our first show and that many people showed great interest in it and gave us positive feedback.

When did you and your sister start performing traditional Korean dances? Why did you decide to pursue it as a profession?

My sister Yusun started doing traditional Korean dances when she was in middle school, and I started seriously doing it when I was 19 years old. Our mother Yoon Sook Park, who is the president of KTMDI, learned the *gayageum* and traditional dance from some of Korea’s greatest master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ance. She started performing on TV and radio and holding concerts abroad at an early age. If she had chosen to stay in Korea, she would have been designated as a living national treasure in *gayageum* by now. She has devoted her

entire life to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and I can honestly say that she’s been our greatest influence. She came to the U.S. thirty years ago and settled in New York, so we grew up traveling back and forth between New York and Korea and ended up working in New York.

Now we feel that it is our mission to raise awareness of traditional Korean dance in America. About ten years ago we met Mr. Yi Jo Lim, who is currently the art director of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We formally studied traditional Korean dance by learning his works, and we continue to perform and promote his elegant dance pieces, which show the beauty in subtle movements and in the use of empty space. We also continue to perform other choreographers’ pieces as well.

Do you have any other concerts scheduled in New York in the near future?

Yi Jo Lim is currently ranked as the #1 living national treasure in Lee Mae Bang’s *Salpuri Chum* and in Korean Buddhist dance. Mr. Lim gave us a lot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our show. He’s scheduled to come to the U.S. next year to hold a workshop. We are planning to hold a show featuring his traditional dance pieces, though neither the date nor the venue has been set yet.

Where can people watch more of your performances?

You can see clips of some of our past performances on YouTube by typing in “KTMDI.” Also, you can obtain DVDs of our performances from KTMDI (www.ktmdi.org).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add?

I think that by doing this show, we were able to further solidify our role as NY-based interpreters of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music, and as artists working in America. We want to show that traditional Korean culture is not just something that belongs to Koreans, but something that can be shared with and enjoyed by people of all ethnicities who are living in America, so in order to do that we’re going to work harder and continue studying and experimenting to become more developed, mature artists. And we want to become known as the “Kang Sisters” who are adding some traditional flavor to the Korean Wave that is being currently led by K-pop.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Institute of New York (KTMDI), you can check out their website at www.ktmdi.org

Audience Goes Wild over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s Concert in 2012 Open Stage Series

By Regina Kim
October 24, 2012



Members of NYKTMB performing *Samdo Sul Changgo* (Photo by Regina Kim)

Last Tuesday, October 16th, the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NYKTMB, also known as *Chwitadae* in Korean) kicked off this year's Open Stage performance series literally with a bang as several of its members opened the night with a drum performance titled "*Samdo Sul Changgo*" in front of an audience of about 80 people in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gallery. The NYKTMB was one of a handful of performers selected for the 2012-2013 Open Stage series hosted by New York's Korean Cultural Service and the first band to perform in the series, which is slated to go until June 2013.

Founded in 2008 by traditional Korean music performer and current band director Chun-seung Lee, the NYKTMB has quickly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ost active and respected traditional Korean music organizations in the Tri-State Area. Under the direction of Mr. Lee, the NYKTMB has performed at various notable events, including pre-game shows of New York Mets baseball games at Citi Field Stadium, the annual Korean Parade in New York City, and the annual Veterans Day Parade in New York City. Next year the band is scheduled to perform for the Lunar New Year Festival at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New York City. The group also holds an annual summer camp and offers lessons on traditional Korean music for people wanting to learn more about Korean music and culture.

Although only four drummers played on stage for "*Samdo Sul Changgo*" (a virtuoso piece of alternating slow and fast rhythms played on *changgos*, or hourglass-shaped drums), it seemed more as if 40 drums were pounding simultaneously merely a few feet away from my face, for the sound was amplified by microphones and speakers and all the more enhanced by the

tiny performance space. My ears were already ringing by the middle of this first performance, and I found myself secretly praying that I wouldn't go home after the concert with a major headache and partial loss of hearing. However, if there was anyone else who also felt this way during the opening piece, I must've been the only one there to openly sulk about it, because the rest of the audience cheerfully applauded the performers, seemingly unaffected by the ridiculous decibel level that could've burst anyone's eardrums. But it was definitely a performance that deserved such applause—anyone could tell that the drummers were really into the music, so much so that all of their faces were covered in sweat by the end of only their first piece.

Thankfully, as the evening wore on, the sound volume decreased (as the subsequent drum performances did not use speakers or microphones), and the performances got even better. Guest musician Seungmin Song came out on stage wearing a beautiful red-and-white *hanbok* and played the second piece, a Korean folk song replete with graceful melodies and beautiful scales that was aptly titled "Arang's Dream" (*Milyang Arirang* in Korean), on a 25-stringed *gayageum* (a type of Korean zither).

"*Modeum Buk*," a piece played on barrel drums of varying sizes and tones placed on stands, was one of the definite highlights of the evening. Band director Mr. Chun-seung Lee and three of his band's adolescent male members poured their hearts, souls, and bodies into the performance, which continuously alternated crescendos with diminuendos and fast beats with slower ones, while being punctuated with visceral shouts. Literally heart-pounding and energetic, the piece must have also been very physically demanding, for although the performers played with incredible passion and energy throughout the entire piece, they looked pretty

drained towards the end. Even some of the audience members looked exhausted from simply trying to take in all the excitement. When the drummers were finally finished, an audience member blurted out, "It was great! I'm tired. It was so good. My God! Wow." Later, after the concert was over, I found out that the lady who had made that enthusiastic remark was Jill Fein. When asked if she could elaborate on what she had said earlier, she replied, "It felt like they were drawing down spirits from the highest heavens!"

After a timely intermission, the concert resumed with a rare performance of "*Daechwita*," a type of military march music that was historically performed by the Korean royal military band (*chwitadae*, which is also the NYKTMB's name in Korean) to announce the entrance of the king. "*Daechwita*," which is played with percussion and wind instruments (in Korean, *chwita* means "to blow and to hit"), is rarely heard and relatively unknown even to most Koreans, since it was traditionally reserved for the king. According to the NYKTMB members, Korea and New York City are the only two places in the world where one can see "*Daechwita*," and NYKTMB was the first organization to perform "*Daechwita*" outside of Korea.

Seungmin Song then returned to the stage with another beautiful *gayageum* piece, this time an intricate *gayageum sanjo* (a type of *gayageum* solo) that brilliantly demonstrated Ms. Song's graceful technique and artistic virtuosity.

The sixth and final performance of the night was actually a blend of two pieces: "*Samdo Samulnori*," which draws from different types of farmers' folk music found in the three major provinces of Korea, and "*Binari*," which is a prayer sung to the gods to ask them for blessings and good fortune. Much of the audience was

actively engaged throughout this last performance, swaying and clapping to the music, and some even responding with shouts and cries and other random exclamations (prior to the performance, the band had encouraged the audience to react audibly to the music, telling listeners that traditional Korean music is often an interactive experience between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The NYKTMB, no doubt tired from all of their previous performances, nevertheless maintained their passion and energy throughout this last performance and truly gave it their all right up until the end of the program.

When the concert was over, many members of the audience were enthusiastic about what they had just seen and gave rave reviews of the overall concert. "Excellent! I loved it! The performance is excellent, the preparation and hospitality are excellent. Beautiful! I can't ask for anything more," commented Merlene Groom, a Flushing resident who originally hails from Trinidad and Tobago. Melissa Dymock, who attended the concert with two of her friends from Switzerland, remarked, "It was great! I loved the *gayageum*, and I loved the different age ranges [of the performers] they had." One of her Swiss friends, Sylvia Rysler, exclaimed, "I'm flabbergasted. It's fantastic!" Ms. Rysler then talked about Basel Tattoo, a famous annual military parade show in Basel, Switzerland, that features performances by military bands from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see the band perform there," she said.

Who knows, at this rate, it might not be long before "*Daechwita*" is performed in other places besides Korea and New York City.

For more information on the NY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Inc., located at 42-33 162nd Street, Flushing, NY 11358, you may contact the band's director Chun-seung Lee at chunseung2@gmail.com.

The Jingoo Lee Band Turns Korean Cultural Service Gallery into Live Jazz Club for One Unforgettable Evening

By Regina Kim
October 27, 2012

After kicking off with an intense, adrenaline-charged drum performance by the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the 2012-2013 Open Stage Series took on a much different, much mellower tone for its second day with the Jingoo Lee Band performing fusion jazz for an audience of about 70 people. On Wednesday, October 17th,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gallery was transformed into a live jazz club as members of the Jingoo Lee Band grooved and sang their way through a program of eight songs that ranged in style from semi-classical to Latin-infused jazz to contemporary Korean ballad. All of the songs were composed and arranged by Jingoo Lee, the leader and pianist of the band who holds a degree from the NYU Tisch School of the Arts (among other degrees) and has composed music for Korean dramas.

The program kicked off with a piano solo by Jingoo Lee titled "For Milyang Arirang" (밀양 아리랑을 위한 변주곡). Mr. Lee's contemporary take on this beloved Korean folk song was a jazzy, romantic rendition that made

the original melody barely recognizable, but it was nevertheless pleasant and rather refreshing to hear the traditional folk song revived in an entirely different form.

Three other members of the band came out on stage for the second song, titled "The First Flying" (첫 비행). With talented Malaysian-born Chern Hwei Fung on the violin, another Malaysian-born musician Rozhan Razman on the bass guitar, New Jersey native John Bishop playing the drums, and Korean composer Jingoo Lee on the piano, the band served up a light-hearted, airy tune that somewhat defied genre classification. It was great to see different races and ethnicities represented in the band, which gave it a more eclectic and collaborative feel.

The mood turned more romantic with the next song, "Milonga" (밀롱가), which began with a piano intro that sounded like instrumental music that you would expect to hear in a Korean drama. But the highlight of the piece was the violin—and its skilled player Chern Hwei Fung, who poignantly

executed beautiful melodies that were reminiscent of an old love song.

The next piece, "New Black Cat Nero" (새 검은 고양이 네로), seemed to be an audience favorite. Alternating between jazzy and Latin sounds, the song had a tango-like quality that made one feel the urge to get up and dance. Mr. Lee asked the audience to "meow" at certain intervals of the song, and the audience played its part well, which further added to the fun, upbeat nature of the song.

The ambiance then took a groovier turn with the heavily bass-infused "Soul Onghaeya!" (소울 옹헤야!), an energetic, funky piece littered with many variations and dramatic crescendos. In "Thinking of You" (너를 생각하며), Roselyse Russo and Sarah Sotomayor from the Brooklyn Youth Chorus belted out a duet from Jingoo Lee's very own musical titled "Jiah's Adventure" that is scheduled to premiere next year. Next, jazz singer Vanessa Perea joined the band on stage to lend her silky vocals to the ballad "Home Sick" (향수).



The Jingoo Lee Band, with Dan Lipsitz on the alto saxophone, Chern Hwei Fung on the violin, Rozhan Razman on the bass guitar, John Bishop on the drums, and Jingoo Lee on the piano (Photo by Regina Kim)

But the true highlight of the evening came at the end, when the band played "Oh My Love Arirang" (오 나의 사랑 아리랑), a beautiful and memorable variation on the famous Korean folk song "Arirang." Personally, the sound of Ms. Perea softly crooning "my Arirang" has been forever ingrained in my memory.

When the program ended and the band left the stage, the audience started to chant "Encore! Encore!" After several rounds of "encores" from the audience, the band finally reappeared and performed a different rendition of "Oh My Love Arirang." This time, it was Jingoo Lee himself who sang the lyrics, half of which were in Korean. The song had a much different feel to it when it was sung in a male voice and in Korean. Whereas Ms. Perea's interpretation was in the style of a soft, sweet ballad, Mr. Lee's version felt more akin to a modern Korean folk song. But in both renditions, the refrain of "Arirang" was particularly beautiful and moving.

Audience reactions after the concert were quite positive. Joe, who lives in the Bronx, remarked, "I love these concerts. Allows me exposure to Korean culture, traditional music, and jazz. That last song was tremendous. I'm not Korean, but I could feel it." Ed Kuhn, who came to the concert with his family, commented, "I liked it. First time I was exposed to it, and I really enjoyed it." Matthew King, another member of the audience, echoed these sentiments, saying, "It was awesome. Amazing! I give it a 10. I got what I came here for—great musicians!"

When I asked Mr. Jingoo Lee later via email how he had felt about the concert, he replied, "I was pleased to see that both Koreans and Americans were able to enjoy the concert together and shared similar reactions to the music, which is what I wanted." He then added, "I'm doing this because I'm very interested in giving a contemporary twist to Korean things in my own way, and I am enjoying and loving every minute of it. If, through my music, people are able to feel that true love and what really matters to them aren't far away but can be found

close to them, then I think that's great. Personally, I'm dedicating my current album to my beloved wife, daughter, and my parents."

If you missed this event or want to experience the music again, the Jingoo Lee Band will be performing again in NYC at the Brooklyn Terrace on November 9 at 7pm, 9pm, and 11p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brooklynterrace.com. (PLEASE NOTE: The band's concert at Brooklyn Terrace has unfortunately been cancelled. For an updated schedule of the band's upcoming performances, you may email Mr. Jingoo Lee at his email address below.)

The band is scheduled to perform at the annual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n South Korea next year. For information on this festival, please check out www.sorifestival.com.

To purchase music by the Jingoo Lee Band, please visit the Google Play store or the Jingoo Lee Band's page on Wix.

Mr. Jingoo Lee is currently working as the music composer and conductor for the Korean musical "Jeong Do Jeon" (정도전), a story about the life of the famous Korean politician Jeong Do Jeon who was largely responsible for shaping Chosun-era Korea. The musical is scheduled to be performed in South Korea on December 8th and 9th, 2012. Mr. Lee is also working on creating a musical for young audiences in the U.S. titled "Jiah's Adventure." You may contact him directly at jingoollee7004@gmail.com.

Vong Pak's Blue and White Electric Shaman A Magical Mix of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Rhythms and Electric Guitars

By Regina Kim
October 28, 2012



Vong Pak and his band Blue and White Electric Shaman performing as part of the 2012-2013 Open Stage series (Photo by Regina Kim)

If you thought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could never go well together with electric guitars, think again. On Thursday, October 18th, as part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Open Stage series, NYC-based Korean musician Vong Pak and his band Blue and White Electric Shaman showed an audience of about 80 people the limitless possibilities and aural pleasure that can be created when Korean folk rhythms are seamlessly melded together with contemporary Western music.

A true master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Vong (or Vongku) Pak has been performing and teaching traditional Korean music in the U.S. for many years. Since 2006, Vong has worked on various crossover projects that blend together Western and tra-

ditional Eastern music, collectively titled "Blue and White" (borrowed from the School of Five Elements, with "blue" referring to Eastern culture and "white" representing Western culture). His latest project, "Electric Shaman," is described as "a fusion of traditional Korean rhythms, Korean ritual-style vocals, and electric guitar instrumentals." That Thursday night, both Korean and non-Korean listeners alike had the chance to experience this unique blending of two very different art forms. The resulting mix sounded vaguely familiar, yet indescribable and in a genre of its own at the same time.

The band began their concert with a piece titled "2+3," which started off with traditional Korean drum rhythms that, according to Vong,

originally come from Korea's Gyeonggi Province. Then the bass guitar and electric guitar, played by Jorge Mesa and John Chang respectively, joined in to give a groovy, electronic sound to the beat, in a style that could perhaps be likened to Dream Theater's "Overture 1928." The bass was particularly awesome, and the entire piece was a true blend of East and West and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Vong introduced the second song, titled "Frog," by telling the audience that it could be considered as K-pop—not in the common sense of the word, but by the fact that it was inspired by a once-popular Korean folk song called "Frog Song" (개구리타령). Vong spoke of his visit to Jindo Island in South Korea and expe-

riencing culture shock there because the dialect was so different from the spoken Korean he was used to hearing in South Korea. While beating on two barrel drums (called *buk* in Korean), Vong chanted throughout much of the song in *pansori* fashion (*pansori* is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largely characterized by chanting), albeit in the somewhat strange Jindo dialect (for example, the Korean word for "frog," which is usually pronounced as "gae-goo-ri," was sung repeatedly as "gae-go-ri" (개고리)), which seemed to amuse some Koreans in the audience).

"Electric Shaman I" used a certain type of Korean drum pattern called *teobollim jangdan* that was borrowed from "*Gyeonggi Dodang-gut*," a traditional piece that hails from Gyeonggi Province. The bass guitar proved to be a nice accompaniment as it followed the drum beats, lending the familiar traditional Korean rhythms a wholly different personality. The next song, "Happy But No Exceed," like the title, had an overall upbeat (but not too upbeat) sound to it, and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traditional Korean rhythmic patterns could be shown to have more flavor and variety by adding in some guitar and bass riffs.

Vong's "Fisherman's Song" was inspired by a North Korean folk song that was sung by fishermen in Hwanghae Province to pass the time as they were working out at sea. Sung in a *gyeong-seo-do sori* style, which is characterized by nasal-sounding vocals, the song had an uplifting, soaring quality, as Vong's wailing chants made it seem as if the singer was looking out at the sea and raising his arms up to heaven to pray for a good catch.

The last song of the night, "Electric Shaman II," was by far the longest piece in the program, but it was also one of the more memorable ones. In

introducing the song, Vong remarked that in ancient times, a shaman was viewed as an entertainer and healer who also unified the community, and that he was working to continue the tradition today by entertaining, healing, and unifying people through his music. And with that, he and his band—this time joined by guest artist Bill Mattinson who produced magical and mysterious sounds with his laptop—launched into a New Age-like piece that, as Vong had promised, had a very healing aspect to it. Using unconventional instruments, including a long, tube-shaped object that produced rattling sounds like rain when inverted and a sheet of aluminum that mimicked the sound of thunder when shaken, the band members conveyed the sounds of nature's forces, lending an overall ethereal quality to the song.

The audience generally seemed to be pleased with the concert. "It was interesting to hear music from Korea. I learned a little bit about Korea and its music, so it was good," said Leah Frey, a young member of the audience who hails from Switzerland. Richard Sasso, another concert attendee, accurately described the last piece, "Electric Shaman II," when he said, "The last song in the program today—it put me in a very meditative mood, almost in a trance-like state. It was very contemplative." A middle-aged lady named Valentina offered her detailed opinion of the concert and of the Open Stage series in general, remarking, "I have the highest opinion of the concert. I've been to all three [Open Stage] concerts, and they're all very innovative. Moreover, the artists are highly professional, and although this kind of music is new to me because I was brought up on classical music, it was absolutely wonderful. I was overwhelmed with emotion. It was so incredible—the first concert, the second, and today the third—absolutely

fantastic! So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Curious to know how Vong himself felt after the concert, I later asked him via email about his own thoughts on his band's performance at the Korean Cultural Service. "First, I'd like to say that I'm grateful to the Korean Cultural Service for offering NYC-based artists the opportunity to hold concerts," he wrote. "I hope that in the future Korean-American artists will continue to be given such opportunities to perform. I've been performing on stage for over 20 years now, so honestly I didn't feel any different during the concert. However, I was able to perform very comfortably thanks to the audience's positive reception throughout the concert."

When asked about what inspired him to start his "Black and White" fusion project, Vong replied, "I believe that all art is a reflection of life. Although I'm Korean, I've been living in New York for 15 years, and my life and my art focus on producing a sort of chemical reaction between New York and Korea."

Vong also wrote that he is interested in performing at tours and festivals outside of the Greater New York City area, but that since he is not affiliated with an agency, he himself has to promote his music. "Honestly, I'm a little bit tired of this kind of promotion process," he admitted. But hopefully, through more events like the Open Stage series organized by the Korean Cultural Service that give exposure to talented independent artists such as Mr. Vong Pak, this will soon change.

To listen to and/or purchase Vong Pak's music, you can visit www.cdbaby.com/cd/vongpak. Vong's music is also available on iTunes and Amazon by using the search term "Vong Pak."

Tacit Group

An Audio-Visual Performance Group That Is Changing the Face of Live Music Performance

By Regina Kim
December 12, 2012

If you ever thought it might be cool to compose music simply by playing a video game or by typing words on your computer, or if you ever wondered if that was even possible, then look no further than Tacit Group.

Formed in 2008, the 6-member South Korean group has been revolutionizing music performance by using computer algorithms and live improvisations to create dazzling visual graphics and mesmerizing electronic music. The group has performed at multiple venues throughout South Korea and has held concerts in France and Denmark. This year Tacit Group completed its first U.S. tour, stopping in Cedar Rapids, Iowa; Chicago; and finally New York City, where last Thursday at the Lincoln Center the group performed for a large audience as part of the Center's Target Free Thursdays program.

On the eve of the concert, the co-founders and leaders of Tacit Group, Jaeho Chang and Jinwon Lee, held a lecture and workshop at the Korean Cultural Service NY to explain the basic concepts behind their group's work, which they summarized as "algorithmic audio-visual arts." As fans

of 20th-century minimalist music, Chang and Lee pondered how to make the rather esoteric genre more accessible to a wider audience. They started Tacit Group with the aim of performing cutting-edge digital music for general audiences while maintaining the philosophy of 20th-century minimalist music. During the workshop, Chang and Lee cited the influences of some notable 20th-century composers, including Steve Reich, John Cage, and Terry Riley, all three of whom were pioneers in the exploration of improvisation, uncertainty, and the process of creation in music.

Instead of using conventional musical instruments, members of Tacit Group use Apple laptops to type commands or phrases that produce eye-catching visuals accompanied by distinct sounds. The audience simultaneously hears the music and sees the graphics displayed on a large screen. The result is a rich combination of sounds, colors, and words that engages the audience's full attention. Every piece is performed differently each time because the performances are based heavily on real-time improvisation (within some basic parameters) and live interaction.

Tacit Group kicked off the concert with a piece called "Hun-min-jeong-ak" (the title is a Korean compound word, with hun-min referring to a book used to teach people the Korean language and jeong-ak referring to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performers began by typing Korean letters, whose geometric shapes gave a more technological vibe to the piece as the letters pulsed with bass beats and techno sounds. Later in the piece the players switched to English, forming words and phrases that made the audience laugh and occasionally inviting the audience to participate.

The second piece, titled "In C" and based on composer Terry Riley's work, could perhaps be best described as "minimalist electronica." The piece was long in duration (about 30 minutes), and the music sounded almost ethereal. Each note played was spelled out on the screen (as "Mi, Fa, Sol," etc.), and as the melody grew more complex, the notes began changing colors and intermingling with one another. As the letters danced on the screen, it was as if they had come alive and were playing the music on their own. This stunning visual aspect gave a very organic and artistic quality to the overall piece.



Tacit Group combines computer graphics with digital music to provide audiences with a rich audio-visual experience

In "Space," four of the group's performers engaged in a quasi-arcade game by producing shapes and sounds that interacted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real-time commands the players would type on the screen. Viewers were immersed into a strange virtual universe occupied by living shapes and otherworldly sounds.

In "Puzzle 15," two players (in this case, group leaders Chang and Lee) competed in a race to finish a puzzle of their own faces. As they moved the tiles around, the players created music that sounded somewhat similar to what one might hear on Jeopardy! From an audience's perspective, the piece seemed relatively simple yet highly entertaining.

One of the true highlights of the performance came at the very end, when all six members engaged in a round of the classic video game *Tetris* for their piece "Game Over." During the workshop, Chang and Lee had explained that they had input a certain set of rules to determine the sounds that the blocks would make (for example, the height of the block would determine its pitch). Depending on 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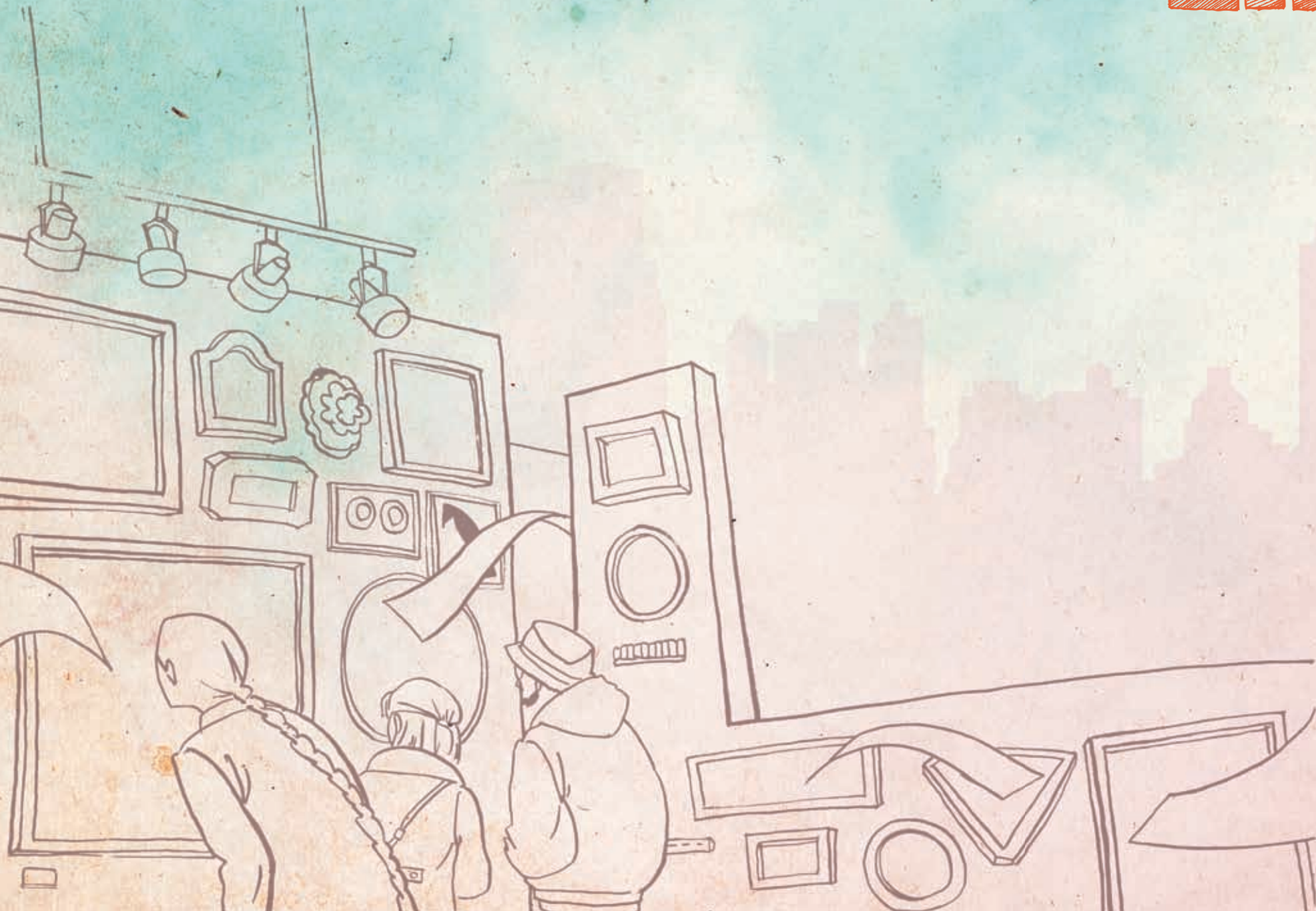
the performers play, the music could differ drastically—play too well, and the blocks disappear too quickly, causing the music to sound rather monotonous. On the other hand, deliberately stacking each block might make for some interesting music, but the player would die off too quickly. Thus, performing the piece requires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two extremes, while simultaneously gauging the progress of the other players. The performers made this look very easy, keeping the audience entertained throughout the entire piece.

Audience reactions to the concert were pretty positive. John Seroff, who hails from New Jersey, remarked, "It was excellent and fun to watch... I think it's impressive that it's being given credence in this fashion, to hold a show like this at Lincoln Center. And their take on 'In C' was most remarkable." Paola Vieira, another audience member who was visiting from Brazil, also apparently enjoyed the concert. "It was very interesting," she said. "I liked the technology, the creativity, and the improvisation. I especially liked how they played games and played with words."

Sofia Ziegler, a native New Yorker who was also in the audience, seemed to agree.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the technology, games, and music," she commented. "I really liked the way that they were able to also integrate audience experience, and how they we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t was really wonderful. And the music doesn't necessarily sound like technology-based music, but the performance was technology-based, so that was really cool."

Fans of minimalist or electronic music, as well as computer nerds and video game aficionados would probably enjoy watching Tacit Group perform in particular. However, even if you don't fall into one of those categories, a Tacit Group concert will certainly provide a multi-sensory, enriching experience for any adventurous concertgoer. After all, an ensemble that makes music on stage by playing *Tetris* with one another? Now THAT is sweet.

EXHIBITIONS



기획취재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리뷰 및 작가 인터뷰

글/사진 · 윤혜수
2012년 7월 12일



갤러리 코리아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전시

“New York, concrete buildings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 is nothing you can't do.”

6월 27일 저녁 6시,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 '뉴욕'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대표곡인 <Empire State of Mind>의 리드믹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이준 작가의 설치작품인 <나무의 꿈>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디지털 미디어, 순수예술,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이 혼재된 이번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전시는 정연심 큐레이터가 기획한 6명의 현대미술작가의 독특한 그룹 전으로 현대미술에 관심 많은 뉴욕인들의 발길을 끌었다. 물끄러미 작품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상상을 해보는 와중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세 명의 작가가 눈에 띄었다. 이럴 땐 '백문(問)이 불어일견(見)이 아니라, '백견(見)이 불어일문(問)'이다. 이번 전시 오프닝에 참석했던 Todd Holoubek 작가, 오종현 작가, 이준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Todd Holoubek

“언제라도 발을 들일 때마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Todd의 작품은 '폭신폭신하고 동그란 카펫' 위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작은 카펫 위에 올라서면 어둠을 밝히는 환한 불이 켜지고, 낮은 음성의 작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너는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작가의 음성은 불안에 떠는 현대인에 대한 위로이다. Todd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족적으로 무리지어 살고, 무리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었을 때 외로움과 고립감에 사로잡힌다는 인류학적 사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고립된 인간은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에서 찾고 자책을 하게 되는데, 기술문명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쉽게 연결되는 듯하지만 사실상 더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현대인의 외로움을 완화시키고 보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오종현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오종현 작가는 공간의 형태와 사람의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공간성에 천착하여 작품활동을 펼친다. 그의 작품은 특징은 카메라로 촬영하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투명하고, 흰 벽의 페인팅은 언뜻 보아 그림인지 그림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런 특색을 고수하는 이유를 묻자 “시각적으로 보일 듯 말 듯한 구조물이나 섬세하고 은은한 색감의 그림에 이끌려,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공간 구성에 적극 활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오종현 작가는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간을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느끼는 감정에 주목한다. 오작가가 '공간성'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며 스페인과 한국에서 자랐고,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문화 공간에의 노출 경험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듯, 이미 의식적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버린 '아프리카'라는 공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에도 없는 공간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오종현 작가는 끊임없이 공간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낸다.

이준

이준 작가의 작품 <나무의 꿈>은 “도시의 죽은 나무들이 만약 살았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도시라는 공간은 인간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보다 지배적이다. 그 와중에 '나무'는 도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 중 하나이고, 사람들에게 섞여 살아가는 나무이기에 “살아있었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이준은 말했다. 이준 작가는 자신의



이준 작가의 작품

작품을 설치하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죽은 나무를 주워 작품에 활용하며, 트위터에서 뉴욕이라는 도시와 연관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감정 단어를 추출해내어 죽은 나무에 디지털 단어로 된 입사귀로 생명력을 되찾아준다. 또한 뉴욕지도가 그려진 디스크가 돌아가며 신호를 읽어 가장 뉴욕적인 노래, <Empire State of Mind>가 흘러나오도록 하였다. 이준은 이번 작품에서 음악, 나무,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예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섭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특히나 예술작품에 트위터를 활용한 것이 흥미로워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준 작가의 생각을 묻자, <나무의 꿈>을 설치한 작가의 근본적인 의도가 내포된 대답이 나왔다.

“기술이란 인간적 활동, 즉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인간의 삶에서 기술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긍정

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연과 기술이 연동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프닝에 참석하지 못한 전수천 작가, 구동희 작가, 김경미 작가의 작품 역시 저마다의 개성으로 관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각 작품마다 작가의 독특한 느낌이 두드러졌고 제각각 관객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다. 이날 오프닝을 찾은 관객에게 이번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묻자 여러 사람에게서 “작품 하나하나마다 뚜렷한 작가의 개성이 넘쳐흘러 매우 흥미롭다”는 공통적인 대답이 나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짐작된다.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한국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한국 영화의 밤>을 통해 갤러리코리아에 대해 알게 된 Marie씨는 뉴스레터를 구독하며 갤러리코리아의 전시를 관심 있게 살펴본다고 하였다. 그녀는 “갤러리 코리아의 전시는 늘 새롭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선보여 언제나 신선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전시 역시 매우 실험적이고 생각해 볼 거리를 주며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은 좋지만, 각 작가마다 지나치게 자기 색깔이 뚜렷하여 전시 전체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감이 없지 않았냐는 나의 질문에 “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그 주제를 받아들이고 표현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소중한 생각 한 줄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지만 내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무엇이었던지 제대로 생각도 해보지 않았으며 부끄럽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나의 질문을 염두 하여 작품을 둘러보고 싶다면 전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전은 한 번 빠르게 훑 둘러보아서는 잘 알 수 없는 전시다. 전시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한 템포 느리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았던 전시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기획취재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정연심 큐레이터와의 인터뷰

글/사진 · 윤혜수
2012년 7월 12일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전은 그 주제가 매우 넓고 광범위하다. 주제 자체가 ‘번역’을 포함하다 보니, 작가들이 주제를 어떻게 번역하고 또 표현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정, 이동성, 번역, 해석”과 같은 키워드를 생각하며 작품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 전시를 둘러봤을 때엔 너무나도 상이한 작품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멍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희뿌연 느낌인 채로 “전시를 봤다”고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았다. 이 전시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과 낯선 느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에 정연심 큐레이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정연심 큐레이터는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술비평과 전시기획을 전공하였다. 오프닝 다음 날, 뉴욕한국문화원을 다시 찾은 정연심 큐레이터에게 궁금했던 점을 마음껏 질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이고 커다란 질문부터 개인적이고 사소한 질문을 모두 망라했던 인터뷰를 통해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전을 완전하게 느껴보자.

전시의 주제/기획의도는?

여정, 여행, 이동, 번역, 해석이라는 키워드가 전시의 핵심이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일상이 된 현대인의 삶은 그 자체로 ‘움직임’이다. 매일 사람들은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학교로 통학을 하며, 영화를 보러 전시를 보러 여행을 하러 떠남과 마주침을 반복한다. 그리고 움직임에는 공간성이 개입된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그 공간을 자신의 주관적 시선으로 번역, 해독하게 된다. 새로운 공간에는 새로운 문화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문화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느낌으로 수용하고 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의 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실제세계와 더불어 가상세계가 맞물리면서 현대인들의 여정, 여행, 이동 그리고 그에 따라 그들은 서로 다른 공간과 문화를 어떻게 번역, 해석하는가를 조명하고 싶었다.

특히 예술작가라고 해서 상이한 문화를 접했을 때 이를 완벽히 해독해낸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라고 해도, 뉴욕이라는 문화를 해독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공간, 이동, 움직임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한 데 묶어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현대인의 삶에서 ‘움직임’이란 큰 부분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굳이 전시를 여정, 여행, 이동, 번역, 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된 특별한 계기 혹은 이유가 있는가?

학생시절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다. 한국은 기능적 건축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미술이론에서 모두 건축을 다룬다. 그 당시 건축수업에서 배웠던 Archigram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다.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Archi와, telegram에서 따온 gram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둘을 결합하여 아키텍그램을 주장한 예술가들은 미래의 인간의 삶은 유목민적 삶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미래공간은 순간적 공간(instant)들로 이루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삶의 배경은 하나의 영구적 공간이 아닌 다수의 소모

적/소비적인 공간들의 결합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처음 이 개념을 배웠을 때 매우 매력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이 예술가들의 상상의 산물이었던 개념이 현실화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과 그에 상응하는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이를 자기 나름대로 번역,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 이동성,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주관적 해독, 해석, 번역’은 한 데 묶일 수 있는 것이다.

동회 작가는 유명한 현대조각가로, 언어를 뒤돌고 통념을 뒤집는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는 현대문화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관객 앞에 드러내어 놓는다. 이 여섯 명의 작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연심 큐레이터를 포함해 일곱명의 공통점이 되는 걸요.(웃음)”라는 나의 말에 경쾌하게 웃었다.

이번 전시가 정연심 큐레이터에게 갖는 의미는?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뉴욕의 풍부한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문화가 그림다거나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기획해보겠다는 계획은 특별히 없었다. 그렇지만 사적 기관이 아닌, 뉴욕한국문화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실험적이고 쉽지만은 않은 전시를 선보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전형적이고 대중에게 친숙한 전시를 소개하고 선보이는 것도 문화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이겠지만, 대중에게는 조금 새롭고 난해하게 느껴지더라도 실험적이고 학술적 가치를 갖는 전시를 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뜻깊은 이번 전시를 열게 되어 기쁘다.

30분 여간의 길고도 짧았던 인터뷰를 마치자 전시를 보고 나서 느꼈던 자족한 안개 같은 느낌이 말끔히 걷혔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불투명했던 작품 간의 연결고리가 명쾌하게 드러났다. 그 이후에 혼자 다시 한 번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자 공간과 그에 대해 반응하는 나의 감정선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더욱 풍부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커다란 주제로 묶여 있지만, 그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변용된 매력을 뽐어내는 작품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아주 현대적이며 실험적인 이번 전시는 한국현대미술이 해외 관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 여정이라는 키워드와 번역, 해석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공간성과 이동성’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2000년도부터 전수천 작가의 기차 미 대륙횡단 프로젝트, <무빙 드로잉>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문화에 노출된 예술가들이 각자 어떻게 이를 해독, 해석하고 반응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새로운 문화에 영감을 받은 소설가는 이야기를 쓰고,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고,음악가는 작곡을 했다. 비록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과 표현방식이 각각각색인 것이다. 이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때 전수천 작가라는 예술인은 ‘설치미술가’를 넘어서 ‘기획자(Dire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수천 작가는 예술인과 공간과의 상호작용과 교감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예술인 간의 상호작용과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셈이며, 그 ‘번역과 번역의 충돌, 만남, 조화’ 그리고 ‘상호작용’ 자체가 예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개념의 확장을 체감할 수 있었고, 마이크로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는 예술적 상호작용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수많은 문화에 노출된다. 윤희수 학생만 해도 한국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뉴욕에 와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번 그룹 전에 6명의 작가를 선별한 기준도 그와 연관된 작업을 한 작가들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작품활동의 성격이나 특색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도 고려하였다. 공간의 이동이 잦았던 작가,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그 안에서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21세기, IT의 시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이는 이동과 보이지 않는 이동 모두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은 설치미술가, 미디어아티스트, 순수예술가 등 다채로운 조합을 선보인다. 현대미술에 와서는 예술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작가를 선발하였다.

▶전수천 작가는 2005년에 기차 대륙횡단 프로젝트로 물리적 이동과 그에 따른 해석 문제를 다룬 바 있고, ▶이준 작가는 ‘나무의 꿈’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해독, 해석, 번역에 대해 탐구했다. ▶오종현 작가는 공간연구와 공간과 관람자의 교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작가다. 그는 전시를 할 때마다 그 장소에 맞춰 작품을 설치하는 ‘장소특정형 미술’을 선보인다. ▶Todd 역시 각박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창조해내고자 하였다. ▶흔들리는 나무와 새, 구슬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많은 작품활동을 펼쳐온 김경미 작가 역시 진부하고 지루한 삶 속에서 비상을 꿈꾸는 작품을 보여주었다. ▶구

A group exhibition of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 여섯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아키그램(Archigram)’

글 · 구도영
2012년 7월 12일

뉴욕한국문화원은 지난 6월 27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The Itinerary of Mobility and Translation’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 그룹 전에는 전수천, 구동회, 오종현, 이준, 김경미, Todd Holoubek 작가가 참여하였고 현재 한국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연심 교수가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이동성과 번역’, ‘인터랙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196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아키그램(Archigram)’이라는 비전적인 건축 그룹이 제기했던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아키그램(Archigram)’ 건축가들이 건축을 객관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었다.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한계에 도달했던 1960년대 건축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참신한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영상, 페인팅, 조명,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수천, 구동회, 오종현, 이준, 김경미, Todd Holoubek 등 국내외 크게 주목 받는 중견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참여로 보다 개성이 더해졌다.

가장 관심이 가는 작품은 이준 작가의 ‘The Dream of the Tree Season New York’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짧은 글씨(Text messages)가 나뭇잎인척 매달려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많은 관람객들 가운데 특히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관객들을 만나보았다. 뉴욕에서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관람객은 “이런 전시회를 종종 방문하곤 한다. 오늘은 회사동료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뉴욕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덴(Den)은 특히 전수천 작가의 ‘The Moving Drawing: The Line that Crosses America’의 작품의 작가이름을 물어보는 등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이 작품은 2005년 뉴욕에서 LA까지 움직이는 기차를 흰 천으로 감싸고 7박 8일 동안 미 대륙을 횡단하며 그려낸 퍼포먼스이다. 전수천 작가는 ‘무빙 드로잉 프로젝트(The Moving Drawing)’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미국 미술계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2005년 9월 14일, 뉴욕 맨하튼에 자리잡은 펜 스테이션(Penn station)에서 미국 서부의 끝 로스엔젤레스에서 마감한 7박 8일동안 진행된 실로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프로젝트였다. 열차에 하안전을 두르고 5,500km에 달하는 미대륙을 횡단하며 미국대륙이 캔버스가 되고, 기차가 붓이 되어 그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로잉 작품을 시도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수천 작가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배병우, 소설가 신경숙, 피아니스트 노영심, 사진평론가 진동선, 건축가 황두진, 영화평론가 오동진, 여행가 함길수, 풍수지리가 조용현 선생 등 유명한 문화계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화제를 모았다.

전시회장을 한번 돌아본 관객은 작품과 작품의 연계성 없이 6인 작가가 개개인 이 작품을 통해 자기만의 목소리만내고 있다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한번 전시장 한복판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본다면 각 작품의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동성과 번역’으로 연결되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결국 관객과의 또 하나의 ‘인터랙션’을 구축함으로써 또 하나의 큰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활동을 했던 ‘아키그램(Archigram)’ 건축가들이 이번 전시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전수천 작가의 말을 인용해 그 대답을 대신하여 상상해본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자주 가는 곳도
처음 가는 것처럼
모두
새로워서 지루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전수천의 움직임은 드로잉 작가소개 중

이번 전시는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7월 31일까지 열린다.

뉴욕 안의 또 다른 도시, <구름도시>

글/사진 · 구도영
2012년 7월 30일



화씨 10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으로 향했다. 메트로폴리탄 옥상가든에서 토마스 사라세노(TOMAS SARACENO)의 설치미술품 ‘구름도시(CLOUD CITY)’에 오르기 위해서다.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건축가 출신 설치작가가 만든 ‘구름도시’라는 작품을 전시한다는 소식 알게 된 후 기대가 남달랐고 더욱이 ‘구름도시’라는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미래에 바다, 하늘 그리고 달에서 집을 짓고 사는 꿈을 그려본 적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사라세노가 생각하는 ‘구름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한시라도 빨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

었다. 뉴욕에 11월 전까지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계 4대 박물관 옥상 위에 떠있는 ‘구름도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CLOUD CITY’는 사물간의 오버랩과 다중반영(多重反映: 여러겹으로 빛이 반사하여 비침)의 키백션을 만듦으로써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상상력을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인 정신상태를 넘어서는 곳으로 우리를 전송할 준비가 된 매개체다. 이 작품은 사라세노가 최근 10년간 작업해온 ‘구름도시들, 공기가 나르는 도시’ 시리즈 중 일부분이다. 현재 첼시의 ‘Tanya Bonakdar Gallery’에 가게 되면 토마스 사라세노의

‘Air-Port-City’, ‘Cloud Cities’ 전시를 다른 공간,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의 전시가 끝나면 2013년 여름 콜로라도 주 마운틴폴스에서 열릴 그린박스아트페스티벌(Green Box Arts Festival)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하늘에 떠다니는 도시처럼 보이는 이 물체는 작은 구름들이 모여 구름도시를 만든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CLOUD CITY’는 단순한 전시품이 아닌 건축가가 디자인한 미래형 건축물처럼 보인다. 미술과 건축이 뒤섞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이루는 설치미술보다는 새로운 재미를 준다.

‘구름도시’는 안팎으로 거울과 유리재질로 되어있어 밖에서는 구름이 반사되어 마치 전시물이 구름이 된 것 같고, 안에서 서있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다.

토마스 사라세노는 1973년 아르헨티나 북부의 투쿠만의 산미구엘에서 태어나 부어노스아이레스대학교 건축과를 졸업 후 독일로 이주해 프랑크푸르트 국립 미술대 미술과 건축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9년에는 실리콘벨리의 NASA(미항공우주국) 국제 우주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거미줄을 이용한 설치작 ‘Galaxies forming like water droplets along a spider’s web’으로 칼더상(Calder Prize)*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베를린 함부르크반호프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버블 20개를 설치한 ‘구름도시들(Cloud Cities)’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만에 살면서 작업하고 있다.

‘구름도시’에 오르기 위해서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티켓이 아닌 특별한 티켓이 필요하다. 4층 티켓박스에서 ‘구름도시’ 티켓을 구매 후 입장이 가능하다. 1회에 오를 수 있는 인원 15명이며 제한시간은 20분으로 정해져 있다. 전시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보통 약 400명 만이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하이힐 착용은 금물이며 밑바닥이 유리 또는 모두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커트 대신 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

안타깝게도 ‘구름도시’ 위에서는 사진촬영이 불가하다 하지만, 옥상가든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

‘구름도시’의 꼭대기 전망대: 모든 관람자가 꼭대기 전망대에만 올라가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맨하튼 풍경을 관람한다. 전망대에서는 센트럴파크가 마치 초록 바다처럼 보인다.

마치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구름도시’에서 나와 답답한 도시로 나가기 못내 아쉬워 전시장을 몇 바퀴나 더 돌며 구름도시에 붙어 있는 거울에 비친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언젠가 하늘에 떠다니는 도시가 있을 것이라던 과거의 기대와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었고 전시를 본 관람객들에게 미래의 도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작가가 생각했던 ‘구름도시’와 미래에 나타나게 될 ‘지금과 다른 도시’를 상상하면서.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Metropolitan Museum of Art):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약 330만 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 칼더상(Calder Prize): 칼더 재단과 스킨 재단(the Calder Foundation and the Scone Foundation)이 주최하는 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모범적이며 획기적인 초기작품을 만들고, 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상금은 \$50,000으로 Rachel Harrison이 2011년, Tomas Saraceno이 2009, Zilvinas Kempinas이 2007, 그리고 Tara Donovan이 2005년에 수상하였다.

Tomas Saraceno on the Roof: CLOUD CITY Exhibition
MAY 15, 2012 – NOVEMBER 4, 2012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Have you ever think about living on the cloud or in the sky in the future? Now, some people think they don't want to live in the big city any more. How about living in the CLOUD CITY made by Tomás Saraceno?

Artist Tomás Saraceno (born in Tucumán, Argentina, in 1973) has created a constellation of large, interconnected modules constructed with transparent and reflective materials for the Museum's Iris and B. Gerald Cantor Roof Garden. Visitors may enter and walk through these habitat-like, modular structures grouped in a nonlinear configuration. Over the past decade, Saraceno has established a practice of constructing habitable networks based upon complex geometries and interconnectivity that merge art, architecture, and science. The interdisciplinary project "Cloud Cities/Air Port City" is rooted in the artist's investigation of expanding the ways in which we inhabit and experience our environment.

전시정보 더 보기 ⇨ <http://www.metmuseum.org/exhibitions/listings/2012/tomas-saraceno>

토마스 사라세노 작가 웹사이트 ⇨ <http://www.tomassaraceno.com/MET/Telescope/>

Traces of Life Photo Exhibit at The Korea Society Shows Korea's Recent Past from a Korean Perspective

By Regina Kim
September 21, 2012



Visitor observing the photos on display (Photo provided by The Korea Society)

On Wednesday, September 19, The Korea Society held an opening reception for two of its current events, *Yeonghwa: Korean Film Today*, a Korean film series currently being show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and *Traces of Life: Seen Through Korean Eyes, 1945-1992*, a photography exhibit at The Korea Society Gallery showcasing the work of some of Korea's pioneering photographers. I attended the reception because I was more personally interested in the latter, as I had never before seen such a large collection of photographs taken in Korea during that time period, which encompasses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he Korean War, and a host of other landmark events in modern Korean history.

Indeed, as I had suspected,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54 black-and-white photographs were being shown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Mr. Chang Jae Lee, an independent curator who, along with The Korea Society, organized the exhibit. The exhibit features thirteen of Korea's pioneering realist photographers who helped shape the future course of Korean photography: Koo Wangsam, Lim Eungsik, Lee Haesun, Lee Hyungrok, Kim Hanyong, Han Youngsoo, Chung Bumtae, Choi Minsik, Joo Myungduk, Hong Suntae, Yuk Myungshim, Kim Kichan, and Kim Soonam. The photographs are on loan from the Dong Gang Museum of Photography.

What makes this photo exhibit particularly special is perhaps best summarized by Sun Il, the curat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Koreans could

finally see themselves from their own perspective, and they could turn from objects captured on film to the subjects who record. They could finally begin to create their own memories about themselves. This is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photographs. This is why they are invaluable."

Modern Korean history, as it is often tau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makes it easy for us to objectify our view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fter all, South Korea is a country that went through the Korean War, military dictatorships and, along the way, a rapid modernization that propelled it into the ranks of one of the world's richest economies—all in a span of about a half-century. There is only so much that can be absorbed, so much that can be imparted in a lecture, a semester-long college course, or even a modern Korean history book. And more often than not,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are ignored in favor of studying the state, Korean corporations, and other powerful agents that helped mold South Korea's transformation.

However, the photographs on display at the exhibit serve to humanize Korea's recent past for us—a welcome break from the conventional dialogue on modern Korean history. We learn that even in the midst of a society that was constantly in the throes of change, Koreans still went about their daily business, much like how South Koreans today go about enjoying their everyday lives, seemingly immune to the threat of their northern neighbor.

These photos enable us to steal an intimate glimpse into Korea's past and to marvel at how much thing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and at how some things have stayed the same. For me personally, they contain some of the stories that my parents and relatives shared with me about their experiences growing up in Korea. In Lee Hyungrok's *Waiting*, for example, I can see my mom holding her little brother on her back as they are waiting for their father to come home. While observing Lim Eungsik's *Early Summer*, I can imagine my late aunt being one of those women in the picture who are wearing fashionable dresses and holding parasols to shield their faces from the sunlight for fear of getting freckles on their clear, white skin. But I suppose these photos will have different meanings to different people. The point is, the focus of these photographs is the Korean people and the ordinary lives they had lived against the background of Korea's dynamic evolution. And I believe that this is the story that many Koreans would like to tell.

The Traces of Life photography exhibit will be open until December 7, 2012. Please note that twenty-nine of the fifty-four original photographs are on display at The Korea Society Gallery. The rest can be found in the catalogue *Traces of Life: Seen Through Korean Eyes, 1945-1992* (edited by Chang Jae Lee), which can be purchased at The Korea Society. Much of the information on the exhibit that has been included in this article has been taken from the catalogue.

The Korea Society Gallery is located at 950 Third Ave., 8th Floor, New York, NY 10022. For more information on The Korea Society (which is entirely separate from the Korean Cultural Service), please visit their website at www.koreasociety.org.

The Body in Languages

New York-Berlin Exchange

Exhibition Showcases Work of Several Talented, Avant-garde Korean Artists

By Regina Kim
November 10, 2012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Artist Ankabuta posing in front of "Made in Germany" with the latex model of her head in her hand (Photo by Regina Kim)



Ankabuta

Four talented young Korean artists. Two cities at the heart of the global contemporary art scene. One dazzling art exhibition that brings them all together. On Wednesday, October 24, the Korean Cultural Service NY,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Berlin, hosted an opening reception for the New York-Berlin Exchange Exhibition at Gallery Korea. Titled "The Body in Languages," the special art exhibit features the works of Ankabuta and Hyoun-Jung Sung from Berlin and Miru Kim and Sun You, who are based in New York. All four artists are young stars in the contemporary Korean art scene who are noted for pushing the envelope on the limits of artistic expression and creativity. On the exhibition's opening night, dozens of art enthusiasts and curious visitors strolled through the gallery space, often pausing to contemplate the pieces before them and to pose questions to the artists, who generally seemed happy to talk about their work.

Directly over the entrance to the gallery, about 2,000 black acrylic ants are plastered to the ceiling and the adjacent wall. The very sight of this sprawling ant colony seemed to incite horror among many of the visitors that night, including myself. But upon hearing a detailed explanation from the artist, Ankabuta (whose real name is Song-ie Seuk), my initial reaction of shock and disgust turned into a feeling of fascination and introspection.

"My install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exhibition space," said Ankabuta in Korean. "This time, as I was taking the New York subway, I noticed the dark train tracks and rats crawling over them, and thought that was fun to see. As I was watching this, images started coming together in my mind. The ants can represent people, or even rats. Notice the places where I marked subway stations like '14th Street' or '59th Street'—I tried to give some hints. And that's why I titled this, 'The Life of New York City.'"

When asked why she chose the name "Ankabuta," she replied in Korean, "Ankabuta is the Arabic term for a female spider. And in Germany, if you say, 'Spinnst du?' (from the German verb *spinnen*), it can be like asking a

spider if it's spinning a web, but it can also mean 'Are you crazy?' I thought it sounded like a fun name and figured I had nothing to lose, so I used it when I began my early works and have been using it ever since. People seem to think it's a cool name, and besides, you need a little bit of craziness to do art in the first place, so I thought it was appropriate."

Ankabuta's other works on display at the exhibit include a miniature latex model of her own head (complete with her own real hair!), a video clip of her creating a labyrinth-like pattern in the snow using her feet, and a series of beautifully drawn sketches titled "Made in Germany." The first drawing in the series particularly stands out, as it depicts an elderly, stately gentleman. "It's a portrait of a German politician I saw in the newspaper one day," explained Ankabuta. "I drew him because I thought he looked very typically German. My professors liked the drawing, so I began thinking about other quintessentially German things that I could draw. So my second drawing in the series was that of a German shepherd. And finally, I decided to draw a potato, since many Germans like to eat potatoes."

Hyoun-Jung Sung

To the left of Ankabuta's work, in a corner alcove of the gallery, stands a gigantic, brightly-colored, cow-shaped sculpture, the creation of Berlin-based artist Hyoun-Jung Sung. From a distance, the "Monster Cow," as it is titled, looks somewhat like a harmless, oversized piñata that has lost its string. However, a close-up view of the lumpy creature reveals numerous images of a person's derriere...and then some.

"I took pictures of my own naked body and then manipulated the photos using my computer," said Hyoun-Jung Sung in Korean. "I thought it might be fun to reveal my body for everyone to see, and then to watch their reactions." A patchwork of feathers, cell phone accessories, and pieces of fabric containing lewd images, the cow would certainly come across as a beautiful monstrosity to many observers.

Hanging on a wall diagonally opposite from the cow is a colorful, flower-shaped clock. From afar, the images that cover the sculpture appear to be innocent depictions of flowers or fruit—interspersed with some abstract designs—but upon closer inspection, many visitors were surprised to find that they were actually representations of male and female genital organs. "I've drawn various sex positions," the artist said frankly.

Sexual images aside, one obvious similarity between the two sculptures is that both are brightly-colored and immediately stand out against the gallery's white walls. Another similarity, though less noticeable, is that both of her works on display contain an owl figurine. "The owl is actually the main subject of my artwork," explained Sung in Korean. "There is one owl in each of my pieces. For example, the owl is hung from a neck-

lace in 'Monster Cow,' and in 'Clock for Fun Sex,' the owl is a clock. The owl is detachable and can be placed elsewhere in the pieces to vary the angle of its gaze. I've installed an owl in every piece because it appears to be silently watching people's reactions to my work."

Sung noted Hieronymus Bosch, a Dutch painter known for his religious paintings, to be one of her influences. "He hid an owl in most of his works," she explained. "Interpreted religiously, the owl can represent God who watches us, which also implies that our impure actions are being watched too. I studied the works of Bosch and thought it would be fun to have the owl theme in my works as well.

"People have become more open about sexuality, but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be secretive about it at times," continued Sung. "In an effort to make people feel more open about sexuality, the owl acts as a figure who watches them in my place."

Sung said she started out as a jewelry artist, but then realized that there were limits to expressing herself solely through jewelry art. "I had an interest in the fine arts too, so I decided to combine the two art forms, and that's how I came to know about Bosch and started to use the owl in my art."

"Besides, I like seeing people's reactions to my artwork," she said.

Sun You

In the opposite right-hand corner of the gallery, multicolored racks, ropes, and chains dangle from the ceiling in puzzling and precarious fashion. These are the creations of New York-based installation and mixed media artist Sun You, whose works demonstrate a skillful and highly creative use of color, space, shapes, and materials. While many of her pieces may appear to be deceptively simple and randomly assembled from a distance, a closer observation reveals a high level of detail and complexity reflective of an experienced artist.

Sun You has already proven herself in the art world with her previous installation series, in which she used thread, vinyl, and Mylar to create colorful plastic sheets that were either suspended from the ceiling or hung on walls. Some of her pieces that were hung from the ceiling gave the illusion of beautiful abstract paintings floating in the air.

For her current series on display at Gallery Korea, Sun You has used a combination of fashion accessories, industrial materials, and house-cleaning objects to create abstract installations that are, in her own words, both "playful and seductive" and that "lean, hang or balance each other in an antic and precarious tension."

At the exhibition's opening reception, Sun You explained in further detail the thought process behind her current installation series. "These are an extension of my ongoing investigations into playful abstraction," she said. "I'm interested in materials that are concerned with the formalism of plastic arts, urbanity, and femininity. I use fashion items, like belts and earrings, but also industrial items like the kind you can buy at Home Depot. I did a 6-month residency in Germany, and one of the benefits coming out of

that residency was that I started using cleaning objects, like plastic gloves and drying racks."

Like Ankabuta, Sun You decided to make use of the ceiling in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gallery (perhaps a sign that great artists think alike?). "As you notice, many of my installations have a linear structure, which means that it's almost like a blend between drawings and sculptures," Sun You said. "When I walked in, I noticed the ceiling the most. So I thought, 'Oh, I've got to work with the ceiling.' Because if I tried to avoid the ceiling, that would become a conflict, and I didn't want that. I wanted something to include the great aspect of this space so that my installation would become more space-sensitive. So I decided to hang things, and this was actually my first time doing [my current series] like this. Because usually I make things thinking that they're going to be free-standing structures in a corner. But when I saw the ceiling, I thought immediately that I would have to make use of it."

Most of Sun You's works are untitled, leaving viewers to form their own opinions and conclusions, however simplistic or complex. In her artist's statement in the exhibition's accompanying catalog, Sun You points to a common theme found in her art, as she poetically writes, "In all of my work, I conflate fine art and fashion or decorative art in a fluid celebration of color, ornament and gesture."

Miru Kim

The most well-known of the artists featured in the exhibition, Miru Kim became famous throughout the art world beginning in 2008 with her "Naked City Spleen" series, a collection of haunting photographs of the artist posing nude in abandoned urban places such as subway stations, tunnels, sewers, and factories. In 2010 she followed up on her success with her photo and video series titled "The Pig That Therefore I Am," which served as a beautifully intricate and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skin as a "merging point" between "the inner body and the world," as well as a study of the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pigs and humans. Her official website, www.mirukim.com, includes a very profound and in-depth artist's statement on the series that is worth reading.

Her powerful self-portraits always feature her in the nude to show humans in their natural state. "I use my body to make a sensory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said Miru Kim, who almost always snaps the photos herself using a tripod and a timer. The result is that the image viewers see of her feels more universal, free of "man-made specificities or cultural references," as Heng-Gil Han, the curator of the Jamaica Center for Arts and Learning in New York, puts it.

The artist's current project on display at Gallery Korea is, in her own words, "still a work in progress." Tentatively titled "The Camel Project," the series of photographs and video footag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mels and their environment,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human beings to camels and the desert environment. In her artist's statement submitted for the exhibition, Miru Kim asks, "Why did camels go into the desert?" She surmises that camels came to live in the desert—a harsh and forbidding

place—"because they wanted to be in peace." Then human beings arrived in the desert and "tame[d] these desert creatures in order to expand our frontiers," she continues in her statement. "But maybe the camels were the ones that chose us as their companions, to increase their population and longevity. Perhaps they also wished that we would learn how to be at peace in the deserted lands."

Her willingness to ponder such questions has taken her on a journey to deser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Wadi Rum in Jordan, the Sahara in Algeria and Mali, Thar in India, and the Gobi Desert in Mongolia, where she has been photographing herself amongst camels in various desert landscapes. In an effort to study nomadic life—a simple lifestyle that has preserved man's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animals—Miru Kim has also videotaped herself living amongst desert nomads. A video footage of her eating, sleeping, and traveling with the nomads (all the while clothed in nomadic garments) is on display at the exhibit. The artist sees her full immersion into the daily lifestyle of the nomads as a sort of performance art in itself. "Art and life become inseparable at this point," she said.

The exhibit will be on display at the Korean Cultural Service NY's Gallery Korea until November 30, 2012. Admission is free.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s and their previous work, please check out their websites below:

Ankabuta: ankabuta.npage.de/cv.html

Hyoun-Jung Sung: beobachterundvertreter.blogspot.com/2012_01_01_archive.html?m=1

Sun You: sunyou.us

Miru Kim: www.mirukim.com

Gallery Ho <Operating System> 리뷰

글 · 윤혜수
2012년 1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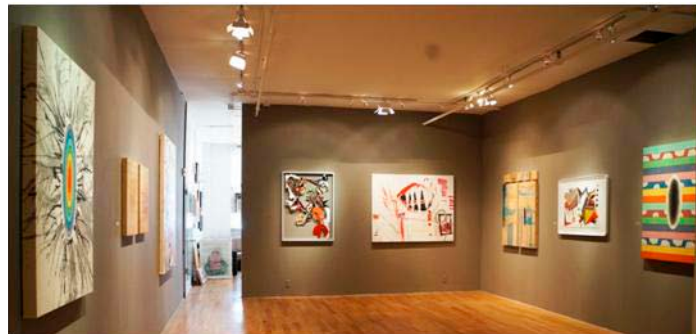


사진 제공: 갤러리 호

2012년 10월 11일 오후 6시, 뉴욕 첼시에 위치한 Gallery Ho에서 Operating System 전시 시리즈의 마지막 전시 오프닝이 열렸다. Operating System은 35명 이상의 예술가들과 작가들, 그리고 세 개의 갤러리가 협력하여 일구어낸 아트 프로젝트로 지난 6월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에서의 첫 전시를 시작, 두 번째 전시는 the DEAN PROJECT에서 그리고 시리즈의 피날레가 Gallery Ho에서 11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Operating System은 갤러리를 포함한 기존의 예술기관이나 박물관이 개별 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시 시스템과 관습에 대한 비판에 착안하여 열린 실험적 전시이다. 즉, 작가들에게 갤러리나 박물관의 특정한 의도나 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시도인 셈이다. 그래서 Operating System을 기획한 한행길 큐레이터는 큐레이터로서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자제했다. 특히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에서 열린 첫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전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작가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정체성, 의도와 취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Operating System의 마지막 시리즈인 이번 전시는 신진 여성 작가 4명의 그룹전으로, 한인 작가 2명(안성민, 이자운 작가)과 현지 작가 2명(Michelle Carollo, Rosemary Taylor)이 참여하였다. 4명의 작가들은 Carolee Schneemann의 대표작인 <체내의 두루말이(Interior Scroll)> (1975)과 김수자의 <보따리 트럭: 2727km)*> (1997)를 시청한 뒤, 이 두 작품을 각각 창의적으로 해석한 그림들을 선보였다. 다시 말해, 한 작가 당 Interior Scroll을 해석한 작품 한 점, Cities on the Move를 해석한 작품 한 점 총 두 점씩 제작하여 갤러리에는 4명의 작가의 8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행길 큐레이터에 의하면, 아무래도 남성작가들이 주가 되어 갤러리나 미술관에 작품을 선보여온 기존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번 전시는 여성작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신진 작가들이 공통적인 두 작품을 본 뒤 이를 해석한 작품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커다란 주제다. 어떻게 작가들이 자기만의 관점으로 기존 작품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새로운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냈는지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였다.



Seongmin Ahn, *Untitled*, 2012 Korean ink and color on mulberry paper, 48"×36"

작가의 내면과 외부세계의 관계를 해석한 안성민 작가

내가 가장 관심있게 봤던 작품은 안성민 작가의 무제 두 점이였다. 안성민 작가는 주어진 두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두 작품에서 타원은 개인 혹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상징하고, 배경은 외부세계를 나타낸다. 김수자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정적이고 차분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안성민 작가는 검정색 타원으로 표현했다. 무질서적이고 다채로운 바깥 세계를 침착하게 관찰하고 이를 질서정연한 형태로 자기 안에 담아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Schneemann의 비디오를 보고 해석한 작품에서는 외부세계보다 훨씬 강렬한 작가의 내면세계와, 강한 자기를 세상을 향해 내뿜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 그녀는 폭발적이고 도발적인 형태로 자신을 세상에 표출하고, 내면세계 역시 파격적이고 강렬하다. 동양화를 전공한 안성민 작가에게 동양화의 기법을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묻자, “물론 작품에 동양적, 한국적인 느낌이 나도록 의도하지만, 한국인인 나 자신도 한국적인 면모가 있는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한 내 느낌을 살려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꼭 한국적인 것이라고 해서 전통적이거나 옛스러운 느낌에 얽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세션에 전시된 두 작품 역시 캔버스가 아니라 한지에 천연 색감을 사용하여 그려진 것이다.



Michelle Carollo, *Lapse*, 2012, Acrylic, pencil, silver leaf on paper, 30"x22"

캔버스에 담기지 않는 것을 표현한 Michelle

Michelle Caroll은 구조주의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림을 주로 그렸던 젊은 여류 작가다. 김수자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으며, <보따리 트럭: 2727km>가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를 두 개의 상자로 표현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첫번째 상자를 그린 뒤, 두 번째 상자를 그리기까지 일마간 유예기간을 가졌다. Michelle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동적인 영상과 달리 캔버스는 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버스에 흡사한 느낌을 표현해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안성민 작가와 마찬가지로 Schneemann의 작품은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Michelle이 영상의 파격적인 느낌을 캔버스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시도 중 하나가 그림작업을 마친 뒤 종이 가장자리를 불로 태워 자연스럽게 그을린 느낌을 준 것이다.

심도있는 작품 해석을 심플하고 독특하게 표현한 이자운 작가

이자운 작가는 <보따리 트럭>에 대한 반응으로 만든 <maze>를 통해 동적인 기준점으로서 개인이 다양한 상황이나 배경, 문화를 연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또한 그 개인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미로 안에서 늘 벽에 딱딱뜨리게 되는 듯한 “분절된 경험”이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한다. Schneemann의 작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자 하는 주체를 보았고, 하나의 육체에 간혀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layers”라는 두 번째 작품에 담아내고자했다. 이자운 작가는 특히 Schneemann의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작품세계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무의식적으로 가져왔던 자신의 한정되었던 작품세계에 도전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Zaun Lee, *Layers*, 2012, Acrylic, pencil, silver leaf on paper, 30"x22"



Rosemary Taylor, *Elegy for the Madness*, 2012, Oil on canvas 46"x60"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색깔에 도전한 Rosemary

Rosemary Taylor는 김수자의 작품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고 Schneemann은 예전부터 매우 그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작가였다고 말했다. “Schneemann은 이전부터 나와 동일시되거나, 내가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많이 해와서 해석과 작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성성에 대한 고민, 몸의 해방, 정체성 문제 등 Schneemann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폭발적인 감정에 Rosemary 역시 공감하였고, 이를 캔버스에 개성있는 터치로 재해석하려고 했다. 반면 김수자의 작품은 이질적이고 낯설었는데, 영상에 흐르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겼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 내놓은 Rosemary의 두 작품은 모두 그녀의 이전 작품들과 매우 느낌이 다르다. 기존에는 더 원색적이고 강한 색을 주로 썼다면, 이번엔 그에 비해 많이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작품을 보고 느낀 걸 토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작업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매우 만족스런 그림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 스스로에게도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도였고,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내 스타일을 발견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미소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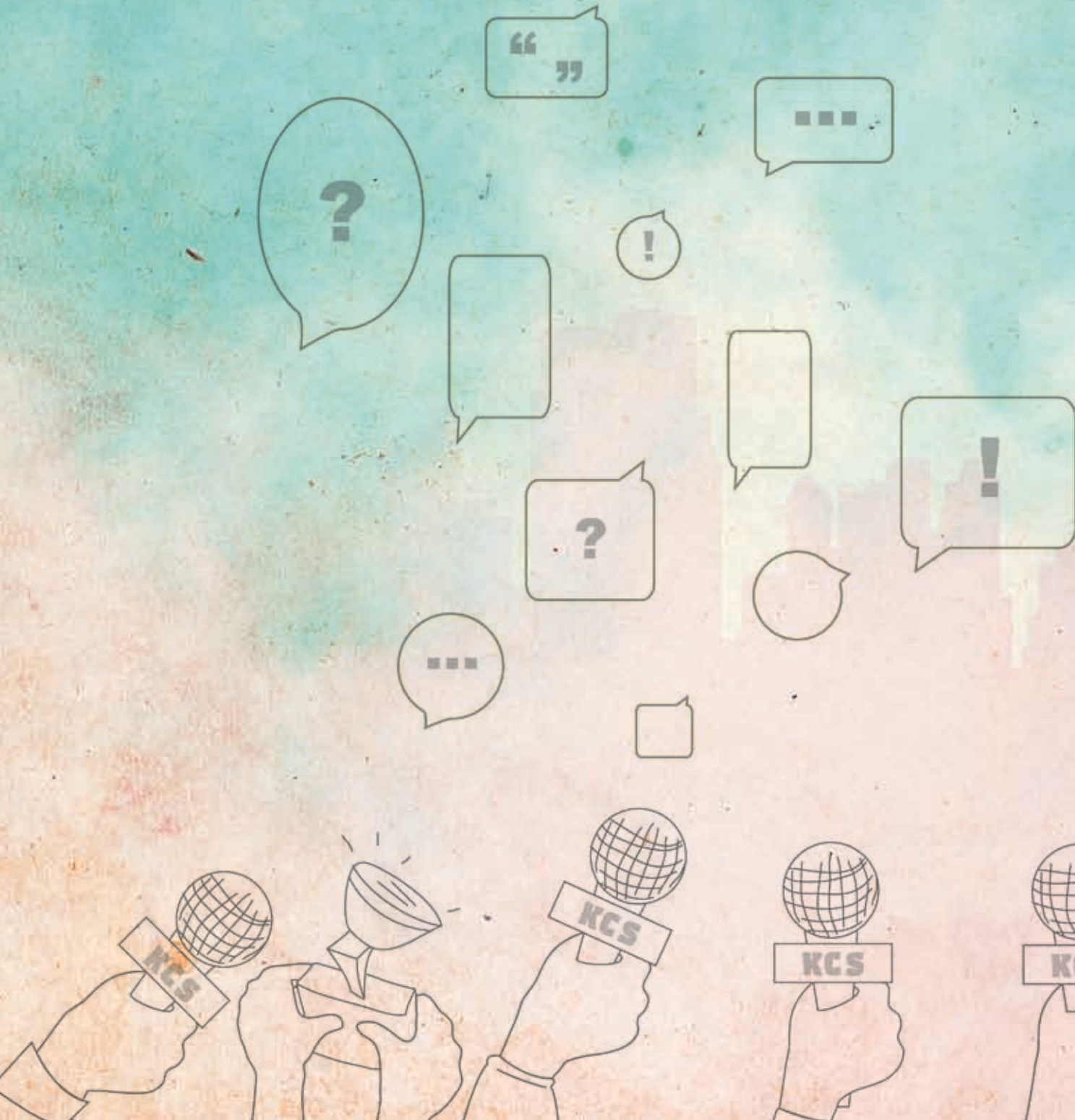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기존 갤러리나 미술관의 전시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미 여류 작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네 작가의 소감을 물었을 때, 한국 작가들은 주로 김수자 작가의 작품에, 미국 작가들은 주로 Schneemann의 작품에 더 큰 동질감을 느끼고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그리고 한미 작가가 그룹전을 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룹전을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으나, 작업을 하는 도중이나 이후에 작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아쉬웠다는 소감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작가들이 모여 서로 작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한다든지, 관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Operating System전은 그 시도 자체가 매우 새롭고 획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떠오르는 신진 작가에게는 자신들의 작품이 대중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이전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주제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와 같은 전시가 더욱 성행하길 바란다.

· <Interior Scroll>: 1975년 뉴욕의 East Hampton과 콜로라도의 Telluride Film Festival에서 상영되었던 영상으로, Schneemann이 나체로 테이블 위에 서서 그녀의 몸을 텍스트로 삼아 진흙으로 칠하는 퍼포먼스이다. 그녀는 여성성과 몸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위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였다.

* <보따리 트럭: 2727km>: 1997년, 보따리 수백 개를 트럭에 싣고 전국을, 더 나아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퍼포먼스 영상 제작물이다. 일반적으로 그녀의 작품은 유랑, 이민 등과 같은 개념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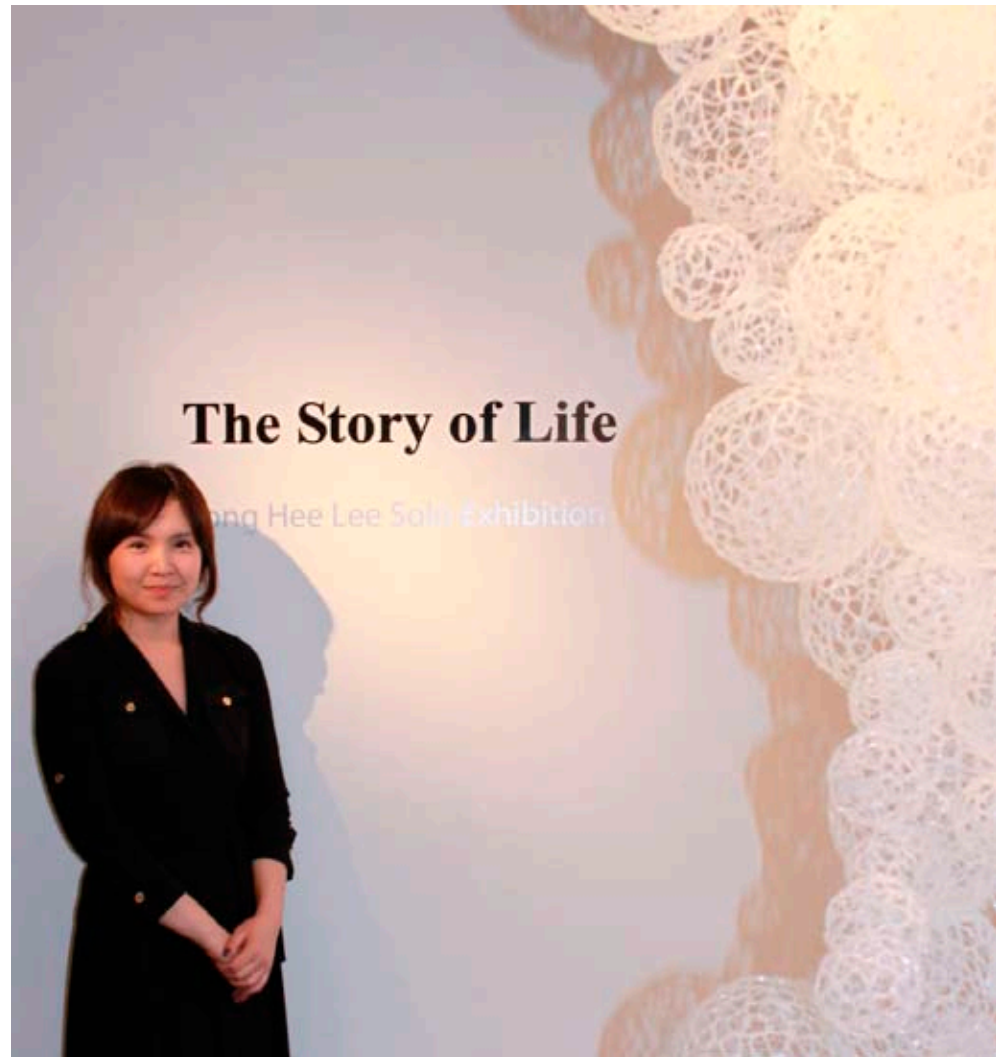
전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Gallery Ho 홈페이지 www.galleryho.net를 참고하면 된다.

INTERVIEWS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설치작가, 이동희

글/사진 · 구도영
2012년 6월 29일



설치작가 이동희

“나의 삶을 그리기엔 CANVAS는 너무 작았다”

건 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한 구겐하임, 세계적인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리고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을 전시하고 있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미술과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이다.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동하기를 꿈꾸는 이곳. 미술과 예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국인 작가가 있다. 설치작업과 페인팅 등이 어우러진 비주얼 설치작업으로 보는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과정으로 선보이는 이동희 작가다.

미국으로 유학은 지 5년, 그녀가 왜 뉴욕을 찾아왔을까? 현재 예감 아트 스페이스에서 7월 1일까지 ‘The Story of Life’ 개인전을 갖는 설치작가 이동희씨를 만나 이번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그녀의 작가로서의 꿈과 열정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이번 전시회 ‘The Story of Life’ 을 진행하게 된 동기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생명탄생 과정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생명의 시작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통해 존재하게 되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탄생과정의 아름다움은 마치 우리 삶의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마땅히 에피소드라고 할 얘기는 없지만 어시스턴트(Assistant)가 없다 보니 혼자 모든 작업을 하었어요. ‘Hot glue’를 쓰다 보니 많이 화상을 입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현대작가들은 늘 재료와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전시회를 가졌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설치작품은 무엇인가요?

‘Black Egg Cell’ (2011, 72” Ball, Mix media)이에요. 강한 어머니를 의미하는 작품인데요. 관람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재미있어서 애착이 가네요. 실제로 큰 ‘Exercise ball’을 사용했는데 많은 관객들이 ‘Exercise ball’을 상상하지 못하고 어김없이 물어보십니다.

Ball이 여기 전시장에 어떻게 들어왔나요? 이렇게 큰데?

사실 바람을 넣어다가 뺄 수 있는, 운동할 때 쓰는 공(Ball)이에요. 이게 공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더라고요.

보통어머니는 따뜻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머니를 상징하지만 왜 ‘Black color’를 고집하였나요?

검정색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난자예요. 하지만 약한 어머니가 아닌 강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을 선택하게 된 거죠.

설치작가가 되는데 가장 영향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저도 캔버스작업으로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 점점 더 큰 캔버스로 바뀌다가 더 큰 장소에 표현하고 싶어서 자연스레 설치작가를 하게 되었어요. 작은 캔버스에 내 생각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설치작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페인팅 작업도 꾸준히 같이 하고 있어요.

왜 미국 유학행을 선택했고 언제 유학을 결정하였나요?

한국에서 디자인전공을 하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왔던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히 순수미술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의 권유와 가족들의 이민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은 꿈은 뭐였죠? Artist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릴 적부터 미술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어요. 집에서든 당연히 내가 잘하는 일을 하길 원했고 작가(Artist)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어요.

혹시 터닝포인트가 있었나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제가 뉴욕에 와서 다시 순수미술을 공부하게 된 일인거 같아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뉴욕에서 공부하며 경험했던 모든 것은 더욱 저의 꿈인 작가(Artist)가 되고 싶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 후 한국을 떠나서 외국생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가장 그리울 때는 언제인가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만약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면 언제쯤이 될까요?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너무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 특히 가장 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을 때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할 일이 남아있으니, 그럴 때마다 꼭 참고 전화통화만 합니다.



Fertilization, 2012 (LED light, Hot glue)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모두 뉴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학생들과는 달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아직 계획은 없네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이려면 모든 유학생들의 어려운 점인 언어이겠지요. 저 또한 언어였어요. 디자인 대학교, 대학원은 보통 다른 수업과는 달라요. 보통 자신의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일이죠. 말로 통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해낸 작품으로 표현하죠. 내 작품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고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전공보다는 같은 전공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가질 시간의 기회가 많았어요. 디자인전공 친구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해요.(웃음) 다른 전공보다는 쉽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거나 다른 길로 가고 싶었던 적 있나요?

늦은 나이에 다시 결정한 길이어서 다른 길은 생각한적이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혹시 멘토가 있나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너무 많지만 꼭 만나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작가가 있어요. 재활용 소재로 여러가지 설치물을 하는 뉴욕출신 설치미술가 타라 도노반(Tara Donovan)이에요.

도노반의 작품을 만났을 때의 나의 느낌은 (처음엔) 큰 규모에 감동받았고, 그녀의 노고에 한번 더 감동했어요. 사실 도노반 작가를 알게 된 것은 이번 작품을 만들 때였어요. 작가인 친구가 어느 날이 작가 작품을 한번 보면 어떠냐고 권유를 하였어요.

저에겐 여러 명의 멘토가 있어요. 대학원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교수를 선택하여 원하는 학기만큼 일대일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여러 명의 멘토의 평가와 정보를 얻으면서 작품을 발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의 교수님들이 저의 멘토라고 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있나요?

뉴욕에 많은 미술관, 박물관 중에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을 좋아해요. 계단 없는 나선형 구조의 전시장이라는 독특한 설계도 이유이지만 내 작품을 설치해 보고 싶은 곳이어서 더 좋아해요.

저를 포함한 설치작가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보면 이 공간에 내 작품을 전시해보면 어떨까? 항상 생각해요. 설치작품은 공간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죠. 나선형구조이기 때문에 내 작품을 설치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이예요.

뉴욕생활은 어떠세요? 작품활동 외에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작업실에서 있지만 시간이 되면 첼시, 댐보, 소호에 있는 갤러리들을 자주 들려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자극을 받는 편이라 친구작

가들과 자주 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첼시에 오픈 하는 갤러리를 항상 가요. 여러 가지 작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자주 가는 곳이에요.

자신의 최종 꿈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종 꿈이라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작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의 일을 10년이 지나도 20년 후에도 계속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나의 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웃음)

작가(Artist)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충고나 조언 해줄 말이 있나요?

늘 자극 받되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내년에 있을 개인전을 준비해야겠지요.(웃음)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전시정보 더 보기 ⇨ <http://gammeeok.com/yegam/gallery.php>

이동희 작가 웹사이트 ⇨ <http://artist-donghee.blogspot.com/>

예감아트갤러리
196-5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Tel: 718-279-7083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Press Conference with Actor Choi Min Sik

By Regina Kim
July 9, 2012



Photo by Regina Kim

On June 30, 2012, a press conference was held with veteran Korean actor Choi Min Sik at the Frieda and Roy Furman Gallery of the Lincoln Center as part of the 2012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For half an hour, the media had the chanc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the star of several Korean films featured in the festival, most notably *Oldboy*. Here are the questions that were asked by journalists, and Mr. Choi's in-depth and sometimes witty responses to them:

How do you feel appearing in front of your New York fans?

Hot. The weather is hot. And the interest that people here at the festival have in Asian movies is hot. Just a little while ago, an elderly gentleman asked me for an autograph, and I could feel how interested people are in these movies. It's my first time in New York, and I can tell that it's hot.

What was it like working with actor Ha Jung Woo in the 2012 Korean film *Nameless Gangster* (also featured in the festival)?

Mr. Ha Jung Woo is one of my colleagues that I have the strongest affection for. He is very strong in his craft and displays a wide and in-depth spectrum of acting skills. He also has a great sense of humor and strong chemistry on screen with many actors and actresses.

In the U.S., you are best known for your role in *Oldboy*. In Korea, are you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 of Oh Dae Su, or do Koreans as-

sociate you more evenly with other roles as well, since they see you in so many movies? Do Koreans see you as a different character?

Because of the unique subject matter that was dealt with in *Oldboy*, the movie was new and unfamiliar to the Korean audience. But I don't think that was the project that I'm most famous for in Korea because it doesn't really relate to the common Korean sensibility. I think my other projects must have been more appealing to the Korean audience.

It's been 10 years since *Oldboy* came out, yet people are still talking about it and screening it. What do you think the attraction for this film is?

I think the film's biggest asset is a sensibility that transcends East and West. In Korea, there is a saying that you should beware of your tongue because evil and unhappiness can be triggered by what you say. I think this film deals with this type of reaction, and with the concept of original sin as well, which also transcends East and West, which is why I think the movie is still being talked about today.

What is it that attracts you to a role?

When I decide whether or not to do a project, I don't think I have a specific taste when it comes to the character per se. For me, it's about the story. If I read the story and it's convincing to me, and I want to dive right in and be a part of the story, that's when I decide to do the project. It doesn't matter if the character is evil or not. If I



Photo by Regina Kim

Q&A with Secret Love Star Yoon Jin-Seo at the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By Regina Kim
July 16, 2012



find myself wanting to ask the writer why he wrote the script, that's when I know I want to work on the movie.

What was it about the script for *I Saw the Devil* that made you end your exile from the film industry?

My exile is a long story...there were some political reasons for it. Let's just say I had some very strong political opinions. When I read the script for *I Saw the Devil*, I realized the character was a very sad, pitiful devil, unlike what I'd seen before. The story was about a monster—a very cold and cruel murderer—who was a human being in appearance but a monster in his genes, and I thought that that in itself was very sad and sorrowful and something that I could sympathize with. I thought the character had a very sad fate, and that to me was very attractive. I was also moved by the sad music, which reminded me of "Morning of Carnival," the theme song from the movie *Black Orpheus*.

How have you changed over the years on set?

Now that I'm older, I joke a lot with the staff. I feel very grateful for our staff because when we make a film, it's about teamwork. It's a joint project, and everyone who is an expert in their own respective field is coming together and working hard to realize that one film. The entire staff works hard to make my acting look better.

Do you still feel like it's a great challenge to do physical roles at your age now?

I don't think the physical challenges were just limited to *Oldboy*; all the other films I've done required strong physical acting. It's very hard to do, so after completing a movie, I always tell myself I'm never going to do it again. But then time goes by and I forget, so when I see a new role that I like, I do it all over again and end up regretting it. I suppose I never learn my lesson in that sense. Sometimes I have to plead with the director because I find the role to be too physically demanding, but then when I see the film after it's been completed, I think that I should've been hit harder, or that I should've beat up that other person harder, etc.

Who do you think has been an influence on you as an actor?

I started learning acting when I was in my third and final year of high school. I started with stage acting. I think of my acting professor in college, Mr. Ahn Min Soo, who taught stage acting and influenced me greatly as an actor. He taught me how to become a good actor, and his teachings have been a strong pillar that I rely on. When I become complacent, I remember the voice of my professor and his lessons—they whip me back into working harder.

My second influence is all the great directors and actors out there who have made great projects. In the U.S., if I had to name a few, I'd say Joe Pesci, Sean Penn, Al Pacino, Robert De Niro, and the director Francis Ford Coppola.

You spoke about growing older, but you look 10 years younger than you did in *Oldboy*. How does it feel?

(Laughs) Thank you.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someone say this in the U.S. Honestly, I still don't think I'm old yet, because in my mind, I feel like I'm only 21 years old, even though I'm technically 51 years old. I listen to a lot of K-pop too, especially the girl groups. (Laughs). I always try to change and not stay still.

This fall Spike Lee will start filming the remake of *Oldboy*. Any feelings or advice or blessings?

Personally, I'm really excited about it. I really like the actor Josh Brolin and have high expectations of him. I saw him in *No Country for Old Men* and admired his acting. But I've also thought about what if Sean Penn could play my character.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this film will be made by a very different artist and in the U.S. I'm curious to see how the film will be interpreted through an American lens. Mr. Spike Lee and Mr. Brolin haven't called me yet, but I'd be very interested in having drinks with them and giving them some tips. (Laughter from the audience).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On Tuesday, July 10th, about 250 people piled into two theatres at Tribeca Cinemas (54 Varick Street) to watch the free screening of director Ryu Hoon's *Secret Love* (Korean title: *Bimilae*), presented jointly by the Korean Cultural Service NY and the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The audience was treated with an appearance by the beautiful lead actress herself, Ms. Yoon Jin-Seo, who is only 28 years old but already a veteran of the Korean film industry, with roles in numerous Ko-

rean blockbusters including *A Good Day to Have an Affair* (2007), *Beastie Boys* (2007), *All for Love* (2005) and *Oldboy* (2003).

Ms. Yoon briefly introduced the film and stayed after the screening to do a Q&A as well as sign autographs for members of the audience. The Q&A was led by Samuel Jamier,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and Ms. Yoon gave her responses through an interpreter.

***Secret Love* is an erotic, edgy melodrama. How did you approach the film?**

My explanations may not be good enough, since this film was made 4 years ago, so I don't remember much. But when I was filming this, I was in a sensitive mood, and I remember thinking it was very intense. I've never been married and had a husband, much less a husband who fell into a coma. Personally, it took me a while to take the movie realistically—



About 250 people were in attendance for the screening of *Secret Love* (Photo provid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The Music of North Korea: Pathos and Passion Concert
at The Korea Society

Interview with Eun-sun Jung, Award-Winning Gayageum Performer

By Regina Kim
August 9, 2012

the thought that the person you love is lying in front of you as if he were dead. Overall, it was definitely a good experience.

In this movie, you play opposite actor Yoo Ji-Tae. You also appeared in *Oldboy* alongside him, as the sister of his character, is that correct?

Yes, that's right, he played my younger brother. Actually, I filmed the movie with the child character of Yoo Ji-Tae (played by Yoo Yeon-Seok), so *Secret Love* was really my first time working with Yoo Ji-Tae.

You've played a lot of interesting characters, such as the role of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in *Iri*. What draws you to these characters in particular? Do you have a preference for TV or for film?

Personally, I don't watch many films, and I didn't grow up watching dramas (Korean TV series). I don't feel close to them. I feel more comfortable with art house films. Fortunately I got to work with a lot of good directors, and through them I've become known to a wider public audience. But half of my films have been commercial films

and the other half have been art house films.

You've been living here in the U.S. for a couple months now. Who are some American directors you'd like to work with?

I love so many American directors, so I don't know who to choose. Hollywood is the hub for many famous actors and directors from all over the world, so there are many people I'd like to work with. I have many favorite Hollywood directors, but I don't know if they would know me, so I'm careful about mentioning who I'd like to work with. I'm actually considering a Hollywood project right now. But I can tell you that I'd like to work with a writer or director who has a great thematic message.

How do you feel now in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film industry compared to when you first started?

In Korea, the film industry tends to be stricter towards the younger, less experienced people—if you're late on set, etc. You're more limited if you're young. Now, if I'm late, it's not such

a big deal anymore. Now I feel that people have become more generous with my mistakes on set. When I was young and starting out in this industry, I was very nervous, but now I feel more comfortable working with people and working in this field.

What are some of your future projects that you're working on?

My next film is called *Woman Who Doesn't Sing*. Also, since several years ago, traveling has become my hobby. I'm preparing to publish a travel journal that I've kept.

Are you considering making NYC your home?

I'm planning to return to Korea. But NYC is a great place to visit. NYC has a lot of good shows, and I've made a lot of friends here even though it's been only 2 months. I have more freedom here too—freedom to eat in parks, etc.—which I like. But I'll be going back to Korea.



Photo by Regina Kim

On Thursday, August 2nd, 62 people—both Koreans and non-Koreans alike—attended “The Music of North Korea: Pathos and Passion” concert held at The Korea Society. Ms. Eun-sun Jung, an award-winning *gayageum* (traditional Korean stringed instrument similar to a zither) player from South Korea, performed 2 traditional Korean folk pieces (a *gayageum sanjo* based on the style of the late Master Kim Byung-ho and “*Chun Seol* 춘설 (Spring Snow)” composed by Master Hwang Byung-ki), 3 North Korean folk pieces (“*Hanobaeknyun* 한오백년”, a variation of “*Tondollari* 돈돌나리” composed by Kim Bo-hyun, and “*Baekdoraji* 백도라지”, one of North Korea's most popular folk songs based on the original Korean piece “*Doraji*”), and an improvisational piece titled “*Yangcheong Dodeuri* 양청도드리”.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s, the audience was enthusiastic and gave a warm applause that lasted for a while, after which Ms. Jung treated them to a special encore performance of “Amazing Grace” and the famous Korean folk song “*Arirang*” on her *gaya-*

geum. After the concert ended, many non-Korean members of the audience commented that they loved the performances and didn't know that traditional Korean music could sound so beautiful. Even I, a Korean-American who has heard some traditional Korean music before but never really felt drawn to it, was moved to tears when Ms. Jung played “*Baekdoraji*,” a simple yet very melodic and beautiful folk piece. (You can watch a clip of Ms. Jung performing “*Baekdoraji*” on YouTube by clicking here. There is also a clip of her performance of “*Tondollari*”, available here).

I was lucky to catch up with Ms. Jung the day before her concert for an interview, during which I learned so much about traditional Korean folk music and its evolu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background? Where were you born and raised, and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playing the *gayageum*?

I was born in 1985 in Seoul and grew up there. I started playing the *gayageum* when I was in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I was 10 years old (in American age) at the time. My mom’s friend played the *gayageum*, and one day she played for us at our school. After seeing her performance, I told my mom I wanted to play the *gayageum* too. I had learned to play the piano before that, but that was my first time being exposed to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gayageum*’s strings are made of silk, so the sound is clear and beautiful. I was drawn to the sound, so I started learning it then and later attended Gukak National Middle School and Gukak National High School (South Korea’s top middle and high schools for teaching *gugak*, which means traditional Korean music—90% of its high school students go on to college and 20% of its high school seniors atte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y in South Korea.).

It’s interesting that your concert focuses on North Korean music. Any particular reason why North Korean music was chosen for this performance?

The Korea Society actually chose the program as part of its Traditional Korean Music Series, so I studied a bit on North Korean music. North Korean folk music sounds different from South Korean folk music. It’s hard for foreigners to tell apart North Korean folk music from that of South Korea, but it’s easy for South Koreans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North Korean folk music—both 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folk music as well as *shin minyo* (신민요, contemporary folk music composed in the traditional style)—sounds more high-pitched and, if sung, more nasal too.

Since much of North Korean music today is propagandist music, I couldn’t fill a 1-hour program with just North Korean folk music, and of course I didn’t want to play any North Korean propagandist music. So I included some traditional Korean folk music in the program as well.

For people who are not familiar with *gugak*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are not used to hearing it, is there any advice you can give on how to listen to and learn to appreciate traditional Korean music? Are there any particular artists, songs, and/or albums that you would recommend for people who may be interested in exploring traditional Korean music further?

Some traditional Korean folk pieces are slow, while others are faster and livelier. One type of slow traditional Korean music is *jeong-abk* (정악), which is described as being not too sad nor too upbeat. Slow music like *jeong-abk* has a certain freedom, depth, calmness, and space to it, which can be enjoyable in today’s hectic society. Faster pieces, like *sanjo* (산조, *gayageum* solo), are more colorful and have more variations within them, so they can grab the listener’s attention with their energy. Listening to them can be kind of like watching a movie or TV series, in a sense—you go through ups and downs and may feel alternating moments of joy, anger, sadness, and happiness. So I would suggest trying to appreciate each type of music in its own way.

As for traditional Korean music albums I would recommend, I would pick the 21st Century Korean Music Project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album (a different album is released every year;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please see the answer to the next question) and albums released by CMEK (Contemporary Music Ensemble Korea), a contemporary music/Korean *gugak* ensemble that was started by Lee Ji-young, a *gayageum* player who was my mentor and is now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showed me how to use the *gayageum* to expand and hone my musical abilities. She started collaborating with foreign musicians about 10 years ago, when even fewer people knew about traditional Korean music. (For more information on these albums and/or to purchase them, please see the links at the end of this article.)

With many Koreans these days preferring to listen to K-pop, Korean rock, Korean trot, or Western pop, what is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scene in South Korea like nowadays? How popular is it these days, and do people still listen to it?

I don’t think you can really compare traditional Korean music to K-pop or those other genres you mentioned. Traditional Korean music is in a field of its own, similar to how Western classical music can’t be compared to pop music. That said, these days many Koreans as well as foreigners seem to be listening to K-pop. Compared to the number of K-pop fans, I think the number of people who listen to traditional Korean music is low. However, although many Koreans today aren’t very familiar with *guga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Gugak* FM (Korean radio station focusing on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culture)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create and promote new works of *gugak* that might appeal more to the 21st-century listener. For example, about several years ag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gether with *Gugak* FM, established an annual competition called the “21st Century Korean Music Project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The competition takes place every year in June and invites teams of composers and performer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o come up with the most creative works. Teams who do well in the competition hold concerts abroad. For example, last year, a couple of the groups who placed in the top ten performed at Symphony Space in NYC. Hopefully through such efforts, the Korean public will become more acquainted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Do you know what the North Korean music scene is like? Is traditional Korean music still very popular in North Korea?

As I mentioned earlier, I couldn’t fill an entire hour with only North Korean folk music, so I chose to include

traditional Korean pieces. While North Korea today is making some traditional-style music (referred to as *shin minyo*),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music scene is dominated by government propaganda music, but I don’t know how popular such music is in North Korea, if the people actually like it. In July a group of female singers called the “Moranbong Band” was created in North Korea, and they famously gave a concert wearing tight dresses and performing alongside people dressed up as Disney characters. I think North Korea is similar to South Korea in that traditional music isn’t popular in either country.

But at least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supports traditional music because it thinks it must be preserved. In North Korea, however, the government doesn’t support it because it doesn’t convey government propaganda and thus is deemed useless, and so much of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disappeared there. Many famous traditional Korean musicians who had chosen the northern side when the two Koreas split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profession due to lack of support, so their music has been lost forever. The works performed by two of the most famous *gayageum* players in history, Ahn Gi-ok and Jung Nam-hee, weren’t able to be preserved in North Korea. Instead, they are being preserved in South Korea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renowned South Korean composer and *gayageum* player Hwang Byung-ki.

You spoke a bit about this earlier, but how does North Korean folk music differ from South Korean folk music?

Just like each province in Korea has a different dialect, different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their own versions or flavors of traditional Korean music—we musicians call these versions collectively as *tori* (토리) and often put the name of the region in front of “-tori” to distinguish among

them. In general, North Korean folk music sounds more high-pitched and flowery than folk music played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folk songs also often convey the sad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North Korean folk song “*Baek-doraji*,” which is part of the concert’s program and one version of the famous traditional Korean piece “*Doraji*,” was the first North Korean folk piece I’d ever heard. It is a fancy piece of music and has many variations within it.

Also,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own version of the *gayageum* called *okryugeum* (옥류금). It was originally made to celebrate former leader Kim Il Sung. The *okryugeum* today has 36 strings, whereas currently the South Korean *gayageum* has only up to 25 strings.



I heard that you’ve lived in NYC quite recently. What are a fe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you’ve noticed between NYC and your hometown of Seoul? Any plans to return to South Korea?

I came to NYC from South Korea last February, but I ended up living in NYC for only 3 months because I got married last June and moved to Pennsylvania to be with my husband who is a Ph.D. student at Penn State University. So I live near Penn State now. But I’ve been coming to NYC every month because many of my concerts are in NYC.

NYC and Seoul seem very similar to me. Seoul is very busy and crowded like NYC. But NYC has a diversity

of cultures, whereas Seoul is still relatively very homogeneous. The subway system in Seoul is so much cleaner—there are definitely no rats!—but it can be hard to find your way around Seoul even with a map. In NYC, however, the streets are numbered, so it’s easy to find your way around.

My husband was born in the U.S. and so is a U.S. citizen, so I will probably continue living in the U.S. in the near future.

Do you have any more upcoming concerts in the U.S. and/or collaborations with other musicians in the U.S.?

Yes, I’ll be giving more concerts in the U.S., though no precise dates have been set yet. I met Matthew Schreiber,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o’s a composer and interested in traditional Korean music. I plan to hold a concert with him in the fall at the Philip Jaisohn Center in Philadelphia. I’ll also be collaborating with the South Korean guitarist Udoro (real name: 유재성, Yoo Jae-seong) on an album that will be released this fall;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at a guitar-*gayageum* duet album will be produced in Korea.

I also hope to study contemporary improvisation in the U.S.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in the U.S., there are a lot of books and manuals on musical improvisation. Traditional Korean music originally used a lot of improvisation and was passed down through oral tradition. Then we used notes to pass them down, so improvisation largely disappeared from Korean folk music. Today Korea doesn’t systematically teach you how to do musical improvisation. So if I get the chance to study in the U.S., I hope to use the improvisational skills I will have learned to help reintroduce improvisation back into Korean folk music.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기

글 · 윤혜수
2012년 8월 16일



인터뷰에 응하는 플러싱 시의원 Peter Koo (사진: 문화 PD 김예슬)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와 기림길 조성 관련, 플러싱 시의원 Peter Koo와의 인터뷰 기사

뉴욕시의 플러싱에 일본군 위안부의 기림비와 기림길이 생길 예정이다. 플러싱 시의원인 Peter Koo는 유니온스트리트와 노던블러바드 교차로 서쪽 중간의 보행자 광장에 기림비를 설치하고, 유니온스트리트를 Comfort Women Memorial Way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길은 한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거리미화사업과 동반하여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일본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점령지에 대한 학살 및 강간 행위에 대한 국제적 힐난을 피하기 위하여 군 위안부 제도를 설립하였다. 위안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원되었으나, 식민지였던 한국인 위안부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위안부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씩 성행위를 강요당했으며, 이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위안소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위안부들에게 돌아간 경우는 극히 적었고, 위안부들은 군에 의한 잦은 폭력과 살해의 위협을 늘 감수해야 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이 슈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를 열어 왔다. 본 수요집회는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외면 당했으나, 점차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7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성노예)존재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미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네덜란드 하원과 캐나다, 유럽

의회, 그리고 필리핀에서 차례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8년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정부차원에서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 압력을 더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뉴저지의 켈리사이드파크 파크와 뉴욕의 낫소카운티, 두 곳에 위안부 기림비가 설립된 상태이다. 이에 더해 플러싱의 기림비가 설립된다면 미국에만 총 세 개의 위안부 기림비가 생기는 셈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Peter Koo 의원 역시 본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뉴욕한인회의 노력으로 처음 위안부 문제를 접했고,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면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일본의 방해공작이었다. Peter Koo 의원 역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국민들로부터 수 백 통의 항의 메일과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정부차원에서도 기림비 철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했으나, 이는 모두 내정 간섭으로, 기림비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일본의 뻔뻔한 태도가 다시 한 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격렬한 반발심을 키웠다.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대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큰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단기적 처사는 지난 세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과 ‘아시아 여성 기금’과 같은 민간 단체들의 노력을 단순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이 지난 몇 년간 분명히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서는 일본이 식민지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왜곡된 인식이 팽배하는 까닭이다.

미국에 잇따라 설립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의 목적과 의의는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괴팍한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로 국한 될 것이 아니라, Peter Koo 의원의 말과 같이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교육하여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술을 들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비단 한국과 일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역사에 대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군위안부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쟁 중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족문제로 국한시켰을 때 조명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렌즈를 조금 더 넓히자는 것은 일본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축소시키거나 그들의 정부 차원의 주장을 용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던 누적된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고 교육함으로써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홀로코스트와 나치의 잔인함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 반해,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참상이나 대학살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덜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Peter Koo 의원에게 의견을 묻자 “부끄러운 과거를 파헤치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이라고 답했다. Peter Koo 의원과 공유했던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와 기림길을 통해 플러싱 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확산, 전달되길 바라는 바이다.

김영순 예술감독님과 인터뷰

글 · 김두리
2012년 9월 28일

White Wave | Young Soon Kim Dance Company

여름의 끝자락, 어느덧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뉴욕에서는 여름 축제들의 막바지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여름축제 ‘SUMMER STAGE(썸머 스테이지)’는 뉴욕시의 자랑인 수 많은 공원에서 음악, 댄스,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다. 1987년, 센트럴파크에서 시작된 작은 무료공연이 계기가 되어 그 후 매년 여름마다 공원에서 공연을 즐기게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메인 스테이지인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뉴욕시의 다섯 구역(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으로 확장되어 18곳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공연기획이 되었다고 한다. 올해는 6월 6일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계속 된 이 축제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공연이 있다. 바로 김영순 댄스 컴퍼니, WHITE WAVE의 HERE NOW SO LONG이라는 공연이다.

이 공연은 올해 썸머 스테이지에 초청되어 8월 17일 차이나 타운 근처에 위치한 이스트 리버 파크에서 본 공연을 올리게 되었다. 썸머 스테이지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2~3개 정도의 각기 다른 공연을 하는데 이날은 화이트 웨이브의 공연이 마지막 공연으로 올려졌다. 무대 바로 앞에 이스트 리버가 보이고 맑은 하늘과 제법 가을 바람이 부는 선선한 공원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색다른 흥분을 가져왔다. 공연장에는 7시 전부터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8시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되기 전, 유명한 안무가와 그의 학생들이 나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공연장이 공원이어서 어수선하고 짐승이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해가 지면서 자동으로 조명 효과를 가져왔고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무료공연임을 무색하게 하는 신사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딱딱한 공연장의 모습과도 많이 달랐는데,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다면 사 진을 찍는다면 자유롭게 호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그러했다. 결과적으로 화이트 웨이브의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고 나눠준 안내책자만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인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삶과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게다가 비가 올 듯 말 듯 해 걱정했던 날씨도 오히려 전화위복 격으로 선선한 바람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적한 여름 밤에 적당히 진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좋은 공연이었다. 뚝뚝 울려 퍼지던 북소리와 물소리가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내내 귀에서 맴돌았다. 관객들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었지만 웬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공연을 만들기 까지 김영순 예술감독님의 노력과 화이트 웨이브의 행보가 궁금해졌다.

WHITE WAVE

1988년에 설립되어 지금은 10명의 뛰어난 댄서들로 구성된 화이트 웨이브 김영순 무용단은 뉴욕 현대 무용계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손꼽힌다. 지구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인간 정신의 기본 정수와 조화를 이루는 창조작업을 모토로 김영순은 미국과 동아시아 등의 주요 공연장 및 그리고 미 전역 등에 걸쳐 초청 공연을 하였다. 또한 지난 십 년 동안, 김영순 예술감독은 세 개의 페스티벌(덤보댄스 페스티벌, 웨이브라이징 시리즈, 쿨뉴욕댄스 페스티벌)을 화이트 웨이브 John Ryan 극장에서 연중 개최해왔다. 2007년 발표된 ‘숫’에서 김영순 예술감독은 현대무용과 에어리얼 안무를 접목시켜 혁신적인 작품을 개발하였다. 김영순의

숫 시리즈(2008-10)는 본 극장에서 매년 빛나는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2010년 덤보댄스 페스티벌, 김영순은 So Long for Now(2010-11)의 4색선을 페스티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리미어 합과 동시에 브루클린의 Fulton Ferry Landing에서 처음으로 무용작품을 선보이는 역사를 남겼다. 이후, 작품을 향상시켜 2010 웨이브라이징 시리즈, 2011 쿨뉴욕댄스 페스티벌에서 공연하였고, 2011 덤보댄스 페스티벌에서는 새로운 마지막 색선을 추가하여 완성된 So Long for Now를 선보였다. [출처. 화이트웨이브댄스컴퍼니]

HERE NOW SO LONG

2011년 11월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에서 기획하는 뮤지엄 공연 시리즈에 초청받아 공연 한 작품으로 비디오 영상, 어쿠스틱 및 전자기타의 연주 그리고 댄스가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Collaborator들과 함께 창작되었고 넘치는 에너지와 새롭게 도전한 신선한 춤사위로 현대무용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지금을 살고 있는 인간의 가슴과 머리는 늘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서부터 오며 미래의 올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현대무용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 작품 곳곳에는 김영순 무용감독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몇 가지 물건들을 통해 그 의미를 쉽게 전달한다. 대표적으로 HERE NOW를 나타내는 신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공간, 이 시간에 일어나는 많은 충격적인 뉴스들을 나타내고,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화분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희망을 나타내며 화분이 등장하며 새로운 미래와 생명력을 나타낸다. [출처. 화이트웨이브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의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는 김영순 예술감독

기획취재: 김영순 예술감독님과 인터뷰

지난 8월 11일 떠오르는 예술가들의 도시 브루클린 덤보의 한 공연장에서는 썸머 페스티벌에 올린 초청 공연을 위한 준비로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바로 김영순 댄스 컴퍼니인 화이트 웨이브 무용단이였다. 올해 썸머 스테이지에 초청되어 here now so long이라는 작품의 연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전 오랜만의 내한 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자마자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길어진 여름밤을 축제로 즐기는 사람들과 반대로 연습과 페스티벌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연습실을 찾아가봤다. 쉽없이 이러한 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순 예술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우리 무용단 춤 잘 추죠? 저는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본인의 무용수들을 지켜보는 눈이 매서우면서도 따뜻하다. 연습 때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실제 공연처럼 리허설을 할 때는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긴채 지켜봐 주고 있었다. 현대무용은 잘 접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까이서 관람을 한 적도 없었던 나는 모 든게 그저 신기하게만 여겨졌다. 춤이 아니라 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2시간여 동안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이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흥미로웠다. 그러자 나는 어떻게 이 무용단이 만들어 진 것인지 궁금해졌다.

무용단원들의 국적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무용단원을 뽑는 오디션을 정기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단원들을 뽑으시는 건가요?

단원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하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 오디션을 통해 뽑습니다. 특별히 어떤 국가, 어떤 사람으로 제한을 두지도 않죠. 다만 제가 보고자 하는 건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잘못 되어 있으면 제가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캐릭터와 열정을 보려고 합니다. 캐릭터는 그들의 무용에 나타나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디션을 보다 보면 같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혼이 없이 텅 빈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춤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담고 혼을 담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특별한 오디션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직접 찬 안무를 가르쳐 주고 얼마나 빨리, 잘 본인의 것으로 습득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용가들이 춤을 출 때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지 알아요. 그것을 고쳤을 때 얼마만큼 달라질지도 알고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해요.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서조차 자기만 고집하면 발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무용단이 원하는 무용수가 될 수도 없지요. 지금 조금 잘한다고 해도 저는 미래를 보고 뽑으려고 해요.

안무를 직접 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도 감독님이 직접 안무를 고안하신건지, 만들어진 안무는 어떻게 가르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작품은 내가 모든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무용단원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나는 영어를 한마디 뿜 수 없을 때부터 안무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한 단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Young-soon, You don't have to explain anything, your body explain everything.’ 그게 제가 안무가로서도 꾸준히 활동하는 이유죠. 하지만 같은 것을 배워도 무용수들에 따라 동작이 달라져요. 하지만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부분은 여러 무용수들이 똑같이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들의 다름도 창작이라고 생각해요. 댄서에게 움직임은 소통의 기구니까요. 안무가로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죠.

무용가로 활동하다가 예술감독이 되셨는데 무대와 작품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설명해주신다면?

직접 춤을 출 때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움직임을 소화하느라 내 모든 감각은 내 몸에 집중돼있었어요. 나는 아직도 댄서로서 춤을 추지만 점점 무용단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안무가로서 프로듀서로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춤에 대한 생각이 훨씬 명확해졌죠. 나는 춤을 오랫동안 춰왔기 때문에 신체적인 인지 능력이 매우 발달해있다는 건 알았지만 춤을 전혀 추지 않을 때는 지식적인 인지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건 얼마 전이야 알게 됐어요. 그런 내 능력이 무용 감독으로서 활동하는 데 가장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페스티벌을 주관하다 보니 매년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다양한 무용단들의 100개가 넘는 공연을 보죠. 그를 통해서도 내 사고방식과 작품을 보는 안목이 높아졌고 공연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명확해졌어요. 물론 나는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하지만 지금 시간도 매우 소중해요.

현대 무용이 대중문화 속에 깊게 자리잡았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은 페스티벌과 공연들도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인데요. 하지만 12년동안 꾸준히 3개의 무용축제를 기획하시고 끊임없이 통련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랑처럼 들리는데 하늘과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탁월한 디렉팅 능력이에요. 물론 몸으로 해야 되는 거라 본인의 노력이 우선이 되어 하지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개인이 가진 장점을 이끌어주는 티칭 능력도 좋은 무용수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무용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우리 무용단에 들어온다면 돈은 많이 못 주지만 하나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무용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고요. 실제로 6개월이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우리 무용단에 있다가 더 좋은 무용단으로 발탁되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프죠.(웃음) 나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댄서로 활동하던 80년대 초반 제니퍼 멀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넌 최고의 세계에서 유명한 라이브 댄서가 될 거라고.’ 내가 정말 프로댄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 속에 있던 자그마한 동양여자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말이었죠.

또 다른 이유로는 나의 모토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매년 공연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공연이 지금껏 내가 해왔던 그 어떤 공연보다도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제 무용단은 정말 여러 곳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가지점이 나의 공연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원조 한류열풍의 개척자라는 평을 듣고 계신다. 한류가 한창이지만 가끔은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린다고보다는 그저 한국사람이 그곳의 문화를 따라 하는 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올리신 작품들이 정말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작품에 담으신 건지 알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문화의 어떤 부분을 추출해서 그걸 무용 속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초창기에 몇몇 한국적인 몇몇 작품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성공적인 한류를 위한 도구이지는 않았어요. 한국적인 문화를 도입해서 내 무용 속에 넣는 것도 내 무용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나 자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그것에는 한국의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담겨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슛’이라는 작품의 한 섹션은 완전히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저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것이에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는데 배가 고파 밤에 항아리의 동치미를 꺼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만든 장면인데 무대 위에 한국의 항아리가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죠. 항아리를 통해 남녀의 위치가 달랐을 때의 한국 여성들의 한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이 정확한 한류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30여년 동안 태극기를 달고 전세계 이곳저곳에 한국을 알리는데 열심히 뛰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 어떤 형태의 공연을 하든 [김영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고요.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한대수씨의 음악이나 아까 말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없이 외국인들의 호응을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프로 댄서가 되겠다고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한국에서야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게 춤을 잘 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키도 크고 아름다운 서양 댄서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정말 지독하게 연습했어요. 자다가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하루에 14시간씩 강행군을 하며 연습을 거듭하고 나니까 나의 춤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그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승화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춤이 승화가 되면 키가 크고 아름답고는 상

관이 없게 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82년도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에서 춤을 뿔었는데 그때 찰스 라인하트(주최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 마이 갓, 내 눈이 당신만을 쫓아다니느라 다른 무용수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평을 받았다는 게 놀랍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해요. 크리스틴 요시다라는 여자 댄서가 있는데 몸매는 정말 댄서로서 매력적인 몸이 아니죠. 하지만 무대에서 춤을 출 때는 불똥이 튀는듯해요. 그런 댄서를 만드는 게 내 목표죠. 그런 노력이 내 무용단의 장점이고 사랑을 받는 이유이고요. 내가 내 무용단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익숙해져서,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춤을 추지 마라. 모든 순간 순간 젖 먹던 힘을 다해 너의 모든 것을 넣어서 춤을 춰라. 그러면 관객들은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술가들은 본인의 작품에 항상 새로운 영감을 필요로 한다고 들었어요. 6살 때부터 끊임없이 춤을 추셨고 1988년 무용단을 창단, 2001년부터는 매년 몇 개의 페스티벌을 주최하시면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영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감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요. 내 모든 감각은 예술적으로 깨어있죠.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결국 24시간 내 머리가 안무구상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씨름을 계속하지만 무엇을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에서 씨름이 오는 것 같아요. 빠듯한 일정이 압박을 주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춤을 추고 안무를 짤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 모습의 내가 너무 행복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안무를 짜거나 작품을 구상할 때 나는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고 꼭 해야 될 것만 마음에 두려고 해요. 내가 작년에 here now로 뮤지엄의 공연 시리즈에 초청을 받아 작품을 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140석밖에 안 되는 작은 공연장은 이 공연을 하기에 너무 작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떠오른 것이 무대뿐 아니라 그 공연장을 모두 무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무대 첫 줄을 모두 비우고 객석 사이와 땅바닥을 무대처럼 사용했고 공연

장의 양 측면과 무대 뒤에 프로젝트로 비디오를 틀어 공연을 했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공연장의 총책임자도 지금껏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며 감탄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술적 영감은 내 노력에 의해서보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35년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셨을 때와는 확실히 한국 무용가들이 이 곳에서 활동하고 유학을 하는 것에 있어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만들어놓으신 발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데, 한국에 많은 현대무용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번 6월에 한국으로 한 달여 동안 공연을 갔어요. 그때 서울과 광주에서 무용가를 꿈꾸는 중·고등학생과 대학팀, 프로무용수들 1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했죠. 한참 진행하다가 음악을 멈추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의 춤을 보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춤을 출 때 호흡은 매우 중요한데 숨을 안 쉬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깊은 숨을 10번을 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지요. 그건 한국에서 뿐 아니라 내가 무용수에게 어떤 부분은 소리를 지르며 추라고 해요. 살아있는 댄스를 추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이 오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동작 속에서도 살아있음이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무한이 뺏어내고 표현하려고 하세요.

끝으로 앞으로 감독님의 향후 계획과 미국에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12년동안 여러 개의 페스티벌을 주최해왔고 무용단을 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고 하고 있지만 메모나 플랜을 적어두지 않아요. 모두 머릿속에 해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청사진처럼 들어와요. 메모로 적어보려고도 시도도 했었지만 그렇게 다 써놓다 보면 머리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우리 무용단의 플랜은 있지만 나의 계획은 정리하고 계획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를 비우려고 하죠. 그런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계획과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돈 없이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건 바로 그런 영감들이에요. 그

러니 그런 것들이 자리할 공간을 만드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김영순 감독님에 대해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게 깨어진 기분이었다. 질문을 할수록 인터뷰가 아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신선한 대답은 한여름에 더위를 가져주고 있었다. 6살 때부터 춤을 췌오셨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춤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모습이 부러웠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바쁜 일정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이 그 동안의 내공을 보여주는 듯했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덤보 댄스 페스티벌과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릴 웨이브라이징시리즈까지, 그녀의 바쁜 행보가 기대된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광고, 현지의 반응은?

글 · 윤혜수
2012년 11월 20일



사진: 문화 PD 김예슬

뉴욕 최고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타임스퀘어에 ‘기억하시나요?(DO YOU REMEMBER?)’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광고가 걸렸다. 이 광고는 가수 김장훈의 후원으로 10월 3일(현지 시간)부터 12월달까지 3달간 지속된다. 이뿐만 아니라, 가수 김장훈은 그동안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비빔밥이나 막걸리, 독도 문제 등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적인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계 여론을 환기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린 빌보드 광고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최초의 빌보드 전면 광고로, 크기는 가로, 세로 15미터 정도에 이른다. 광고의 배경으로는 빌리 브란트 독일 전 총리의 사진을 사용하였고, ‘1971년,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에서 사죄함으로써 유럽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12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떠나 여성 인권적 이슈”이며 “20만여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짓밟고도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전세계에 알려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싶었다”고 한 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가수 김장훈의 말처럼, 이번 광고의 목적은 세계 여론 환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이번 광고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10월 12일 오후 4시, 타임스퀘어로 현지조사에 나섰다.

타임스퀘어 현지 반응 조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총 8명의 현지인 및 관광객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본 기사에는 그 중 6명의 인터뷰를 간략히 실었으며, 표본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본 기사의 현지 반응이 전체적인 반응을 대표하지 않음을 앞서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의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홀란드 남성 관광객 2명



타임스퀘어에는 광고가 정말 많은데, 혹시 광고들을 눈여겨 보시나요?

네, 뭐 다 꼼꼼히 보지는 않아도 물론 광고들을 둘러봅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걸린 DO YOU REMEMBER?라고 적힌 광고에 눈길이 닿으셨나요?

아뇨, 저건 못봤습니다.

저 광고는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건 광고인데요. 혹시 이런 역사적, 정치적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광고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홀란드의 여성들도 나치 독일에 게 똑같은 일을 당했고, 이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고, 이에 대해 광고를 거는 건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타임스퀘어에는 저를 포함한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모두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저 광고를 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한국인 남성 유학생 2명



타임스퀘어에는 광고가 정말 많은데, 혹시 광고들을 눈여겨 보시나요?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 보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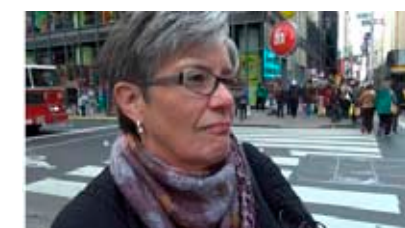
그렇다면 저쪽에 걸린 DO YOU REMEMBER?라고 적힌 광고에 눈길이 닿으셨나요? 저건 한국의 가수 김장훈과 서경덕 한국 홍보전문가가 기획하여 건 광고인데요. 이전에 혹시 그들의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뇨, 저 광고는 미처 못봤네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저 광고는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건 광고인데요. 혹시 이런 역사적, 정치적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광고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처 보진 못했지만, 다시 보니 눈에 띄고, 다른 화려한 광고들과 달리 어두운 색감을 써서 광고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도 어울리고 오히려 부각되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많이 이 광고를 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뉴욕 플러싱 거주 미국 현지인 여성 1명



타임스퀘어에는 광고가 정말 많은데, 혹시 광고들을 눈여겨 보시나요?

전 타임스퀘어에 자주 올 일은 없고, 가끔 오더라도 광고를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걸린 DO YOU REMEMBER?라고 적힌 광고에 눈길이 닿으셨나요?

아뇨, 못봤습니다.

저 광고는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건 광고인데요. 혹시 이런 역사적, 정치적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광고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사는 플러싱은 한인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한국에 아주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들어본 적 있구요. 이와 같은 광고를 하는 건 참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자세히 보진 않지만, 분명 관광객들은 광고를 눈여겨 볼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빌리 블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실 역시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일본 남성 비즈니스 관광객 1명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었고 흥미로웠던 인터뷰는 일본인을 상대로한 인터뷰였다. 특징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이번 광고가 일본인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추어질지 궁금했던 까닭이다.

저쪽에 걸린 DO YOU REMEMBER?라고 적힌 광고,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의 역사문제에 관한 광고인데요. 일본과 독일 총리를 비교하면서, 독일 총리는 사과를 했는데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는 문제를 고발하는 광고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하자면 사실과 진실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인으로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인정합니다. 다만 당시의 좋지 않았던 정황을 살펴보는 데에는 당대 사람들의 이야기와 복잡했던 관계들을 되돌아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인이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테구요. 그렇지만 역시 과거문제에 계속 얽매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강조, 조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해도,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손 잡고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일본인으로서 일본이 제대로 한국에게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귀기울이고, 이해하고 하는 소통과정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 부분에서 서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음, 솔직히 저는 일본이 사과를 하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 그 사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의제에

따라 어떤 사안이 더 강조되기도하고, 불거지기도 하니깐요. 뭐가 진실인지 모른다는 문제죠.

그렇다면, 단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타임스퀘어에 걸린 위안부 광고를 두고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거짓이라고 치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고, 따라서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솔직히 위안부 문제는 60년 정도 계속 있어왔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처럼 강조되거나 조명받았던 적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거예요. 세계적으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집중받은 적은 처음일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사람 중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와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 문제가 60년이 다 지나서 이제야 이렇게 조명받느냐는 거예요. 왜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냐는 거죠. 그게 제가 정말 궁금하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 (후략)

그럼 타임스퀘어에 저런 위안부 혹은 역사관련 광고를 거는 것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의 사는 있나요?

반대도 없고 찬성도 없습니다. 그냥 왜 저런 광고를 걸지? 하는 의문이 들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싶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모른다” 혹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채로 방치해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아는 건 참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그럼..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무엇을 위해” 이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

그건 물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더욱 협력적인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쓰기 위함이었죠. 과거 문제가 청산되어야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목적의식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광고만 봐도, 저것만으로는 일본은 아직 사과하지도 않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힐난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않아요. 그 목적을 잘 드러나지 않고, 일본인으로서도 전달 받을 수가 없어요. 목적은 뭐야? 상대방한테 사과를 받아내는 것? 그게 전부인거야? 라는 거죠.

사과를 받아낸 뒤, 앞으로 나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죠. 다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은 일본에게 계속해서 악감정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점차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도 계속 걸림돌이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몇 번인가 일본은 사과를 해왔고, 일본입장에선 도대체 그럼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하는지 여기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앞으로 몇 백년을 더 사과해야하느냐? 라고 묻게 되요,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일 수록. 사실과 진실은 구분하기도, 알기도 어려워요. 복잡한 문제죠.

일본이 사실상 사과를 몇 차례인가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마도 독일 총리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

갈무리

일본인 비즈니스 관광객과의 인터뷰에서는 역사적인 문제를 두고 드러나는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특히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그의 질문이 인상 깊었으며, 광고를 거는 한국이 더욱 고민하고,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런 광고를 걸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다”라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브로드웨이 티켓팅을 하기 위해 줄을 서며 시간을 때워야 하기 때문에 타임스퀘어의 광고를 눈여겨 볼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자체가 화려한 광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광고를 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충분히 갖는다고 본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독일 총리라고해서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나 유럽 국가들에게 사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모두 용서받은 것도 아니구요.

그래도 무릎을 꿇고 사죄할 정도로, 총리가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일본이 본받았으면 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구요.

최근에는 솔직히 왜 맨날 일본만 비난받게 되나, 하는 억울한 심정도 큰 게 사실인 거 같아요. 어려운 문제고,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 일본 주변국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도 이런 문제가 최근 더 크게 대두되는 외부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뉴욕현대미술관, 한인 스태프들에게 듣는 그들의 이야기

글 · 윤혜수
2012년 11월 20일



Photo by The Museum of Modern Art

글 쓴이는 2012년 하반기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가을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모마에 한인 스태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0명 남짓 되었던 모마 인턴 중에서도 한인 인턴이 어림잡작으로 8명 가량은 되었다. 미술관·박물관 등 여러 문화기관에서 커리어를 갖길 희망하거나 관심을 갖는 젊은 한국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인터뷰를 구상하였다. 본인 역시 문화기관에서 일하거나,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몰라 늘 고민이었다. 미술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인턴십 경험도 없지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인 규모나 명성을 가진 미술관 스태프들은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쇄도했고, 나는 이번 인턴십 기회를 통해 이런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모마는 규모 자체가 세계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명성이나 브랜드 면에서는 가히 세계 최고급의 미술관에 해당하며

규모도 매우 큰 편이다. 총 800명 남짓의 임직원이 모마를 위해 일하고 박물관 산하 부서도 매우 다양하다. 모마는 문화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임을 강조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Education department의 비중이 큰 편이고, 미술관이기에는 물론 Curatorial Department (Drawing, Painting & Sculpture, Film, Media, Prints & Illustration, Photography)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Administrative, Publication, Library, Conservation, Information Technology, Finance, Marketing, Retail (MoMA Store)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모마(미술관)라는 커다랗고 복합적인 문화기관을 구성해간다.

그 중 내가 인터뷰할 수 있었던 한인 스태프들은 각각 Conservation, Publication, Painting & Sculpture 부서에 속해 있고, 3개월에 걸쳐 스케줄을 조정하여 개인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Conservation의 Bonnie Lee, Publication의 Chul R Kim, Painting & Sculpture의 Doryun Chong의 순서대로 인터뷰를 실는다.

Bonnie Lee (조봉옥 님)

Bonnie Lee는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이하 모마)에서 26년 간 일해온 최초 한인 스태프로, 보존(Conservation) 부서의 어시스턴트다. 모마의 초창기 시절, 건물 하나의 작은 미술관에 불과했을 때부터 모마의 역사를 함께 겪으며 일해온 모마의 올드 맴버인 셈이다. 그런 Bonnie Lee의 이야기, 그리고 모마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진: 윤혜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존 부서를 행정적으로 총괄하고, 보존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보존 부서에는 여러 스태프가 일하고 있고, 그 스태프들이 보존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보조하기도 한다.

Bonnie Lee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만들어준 이력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국방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저널리즘으로 석사를 하는 도중 혼인하여, 출산 후 공부를 멈추었다가 40대 초반에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리셨던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 언제나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영문학도, 저널리즘도 아닌 Graphic Design으로 석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남편이 직장을 뉴욕으로 옮기면서, 나 역시 뉴욕에서 직장을 찾게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모마의 보존부서에서 구인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첫 직장이기 때문에 행정직이어서도 기쁘게 일했고 그 뒤로 Graphic Design을 공부한 것을 살려 이직을 생각

하기도 하였으나, 모마와 사랑에 빠져 현재까지 일하게 되었다.

외국인 스태프로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가?

초반기 미술관이 현재보다 소규모였을 당시, 외국인 직원이 거의 없었고 한국인은 단 한 명 뿐이었다. 지금은 미술관에서 외국인 직원은 종종 눈에 띄는 편이지만 내가 처음 미술관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체가, 혹은 직원 자체가 매우 적었다. 부서도 적었고 규모도 적었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가 친분이 있었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매우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미술관 규모와 인력이 방대해지면서 예전의 가족같은 느낌이 사라져 안타깝기도 하다.

모마에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의미 있었던 작업은?

모마에 비치된 한국어 브로셔 제작을 모두 담당하였고, 모마의 한국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통역 작업을 전담했다. 아직 까지도 한국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면 내가 도맡아 진행하고는 한다. 한국에서 손님 오시면 안내를 할 때도 있고, 미술관 폐관 시간에 나오는 한국어 안내방송도 나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이다!

Bonnie Lee는 학창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뛰어난 글솜씨를 지녔지만, 미술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항상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기른 후 평생 가정주부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미술을 선택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늦각이 학생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물론 요즘에도 어려운 결정이고 험난한 과정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커리어를 추구하여 지금까지 모마에서 일하고 있는 Bonnie Lee를 보며 느끼는 바가 많았다.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 나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Bonnie Lee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한아름 안겨주었다.

Chul R. Kim

Chul R. (Charles) Kim은 모마의 출판(Publication) 부서 소속, 출판인(Associate Publisher)이다. 미술관 규모가 큰 만큼 모마는 자체 출판사를 통해 매년 25~30권의 책을 출판하고 있다. 출판 부처의 규모도 관내에서 비중있는 편으로, 총 13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속하여 함께 일하고 있으며 1년 총 예산규모는 약 5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출판부처에 책임자로 있는 Chul R. Kim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미술관의 <출판부서>라는 개념은 적어도 제겐 익숙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술관 소속 출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마 컬렉션이나 전시를 책으로 출판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별 전시를 모마에서 열었을 때 그 전시를 책으로 묶어 출판한다던지 하는 일이다. 보통은 어떤 책을 출판할지 출판부서 내의 편집국에 제안을 올리면, 회의를 거쳐 책의 출판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만 아니다. 특히 요즘에 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책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E-book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마에서 출판된 책은 모두 디지털로 열람이 가능하게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또한 해외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일을 하기도 한다. 모마에서 출판된 책들은 종종 해외에서도 출간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랜덤하우스코리아와 같은 출판사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한다. 모마는 출판물의 경우에 따라 9개의 언어로 출판된 적도 있는 만큼 해외 업체들과의 계약이나 협상, 편집, 번역 문제 등 책임자로서 다루어야 할 일은 다양하다. 관심있는 출판물이라면 직접 내용선정이나 편집 등 책 출판의 세세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있지만,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Chul R. Kim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만들어준 이력은?

나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칠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불어분분

학으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NYU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NYU와 Cooper Union에서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박사공부가 길어지고 가르치는 경험이 쌓일 수록 진로에 대한 회의가 들려던 찰나, 프랑스 문화부 소속 부처에서 출판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프랑스의 고전이나 엄선된 좋은 책들을 번역하여 프랑스 도서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출판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일을 하다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아예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후에는 Smithsonian 박물관에서 9년간 편집장이자 기획자로 일했다. 작은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타회사에 출판물을 맡기는 아웃소싱방식을 택했었지만, 내가 일하면서 자체 출판소를 만든 것이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박물관 입장에서는 저작권, 번역, 편집 등 모든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나 이익면에서나 자체 출판소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 작은 박물관에서 혁신적인 출판사업을 맡기도 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은 뒤 모마 출판부처에서 구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원하여 채용됐다. 모마에서 일한지는 3개월 반 정도 됐다.

외국인 스텝으로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가?

“스텝”으로서 힘든 점은 없었다. 즉, 커리어를 쌓는 데 외국인이라는 요소가 방해가 되었다고 느낀 적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언제나 힘든 점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물론 있다. 다만 그런 개인적인 힘든 점이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마에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의미 있었던 작업은?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모마에서 스텝들을 대상으로 강남스타일 안무를 가르쳤다.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아이 웨이 웨이를 지지하는 Anish Kapoor가 동영상 제작하는데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했고 모마 스텝들의 출현을 요청해왔다. 그래서 모마 Sculpture garden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안무를 가르쳐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그 기억이 모마에 온 뒤 생겼던 잊지 못할 재미있는 에피소드다.

미술관에서 책을 출간하는 것은 일반 대기업 출판사들과 달리 이익추구가 최우선의 목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다고 말한 Chul. R Kim.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판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널리 읽히게 하고 싶은가를 위주로 책을 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성이 강조되는 전시와 달리, 역사성을 가지고 보존될 수 있는 출판물의 가치 때문에 미술관에서 출판하는 간행물들은 더욱 의미있다고도 했다. 전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향유될 수 있다면 그걸 좋이에 인쇄하여 보급하는 순간 그 경험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제는 종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출판부서는 책을 팔기 때문에 미술관의 수익구조개선에 도움 주고, 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블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ul. Kim과의 인터뷰는 흔히 생각하는 도서출판과는 매우 색다른 관점에서 미술관 출판을 이해하고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종이와 기록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나로서도, 그의 관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Doryun Chung

Doryun Chung은 모마 Painting & Sculpture 부서 소속 큐레이터(Associate Curator)다. 모마가 주로 1870년대 이후의 근현대 작품을 다룬다고 봤을 때, 정도런 큐레이터는 근 20년 혹은 넉넉잡아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춘다. 모마 내의 유일한 아시아계 큐레이터인 정도런 큐레이터와의 설레는 인터뷰는 오후 1시경, 미술관 건물 5층에 위치한 그의 오피스에서 이루어졌다.



사진출처: The Museum of Modern Art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주로 “전시 기획자”라는 어렴풋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정도런 큐레이터는 모마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큐레이터라고 하면 대개 전시 기획을 떠올리고, 물론 전시 기획이 큐레이터가 담당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획득에도 참여하며, 동시에 연구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관련 행사 전반에 여타 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하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하나의 전시를 기획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전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기 위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늘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미술관 소장품을 키워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새로운 소장품을 입수하기 위해 예술가 혹은 작품을 발굴하여 제안하기도 하고, 수 차례의 회의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또 대부분의 큐레이터는 큐레이터인 동시에, 미술사학자다.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된 이후에도

(학계에서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미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를 지속한다.

나같은 경우는 현대미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시기획이나 소장품 획득, 연구 등도 현대라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의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라고 하면 1960년대 무렵부터 현재, 혹은 대강 지난 20년 정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해당 시기에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들, 그리고 작품들이 내 전문대상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도런 큐레이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미술, 혹은 동아시아 미술에 특화한다던지, 특별히 더 그 지역에 집중하여 일을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특히 모마 내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미술에 전문성을 보이기를 기대받곤 한다. 미국 사람보단 프랑스사람이나 이탈리아사람이 유럽미술에 좀 더 가깝다거나 전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나는 현대미술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사실이다. 동아시아 지역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남아메리카건, 현대에 일어나는 미술계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관심대상이 된다. 꼭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의미를 둔다거나, 집중하거나 하진 않는다. 지금 발생하는 모든 변화나 미술가들의 활동이 내겐 예의주시할 대상이다.

정도런 큐레이터가 지금의 위치에 있기까지의 이력은?

모마에서 일한지는 3년 반 정도 되었다. 학부와 석사로 미술사를 전공한 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Asian Art Museum이나 San Francisco MoMA 등 각종 미술관이나 문화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2001 Venice Biennale에 참여하는 등 여러 종류의 일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커리어를 쌓았다. 그러다가 2003년 처음, Walker Art Center에서 정규직 큐레이터로 채용되어 6년 간 일한 뒤, 모마로 오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어떤 공부를 주로 하였는가?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비교문학이나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아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수업을 들었다. 그 모든 노력이 현재까지도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사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미술사에서도 나는 한국인이다보니, 아시아에 관심이 있었고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주로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미술사 수업 중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수업이 전혀 없었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한 비서구 국가의 미술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고대 동양 미술과 근현대 서양 미술 수업을 섞어 들으며 스스로 길을 찾고, 감각을 키우는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스텝으로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라면 그 이유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도전이고 어려움이다. 나는 모마에서 유일한 아시아인 큐레이터다. 아시아인 큐레이터가 희소하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쉽지 않은 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마의 직원 구성을 보면 미국, 혹은 뉴욕의 인구구성에 비해 비서구 인구가 과소대표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고위 직책으로 올라갈 수록 직원들의 국적이 미국이나 서유럽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물론 모마는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고려하는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반증이 된다고 본다.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우수한 두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건 행운도 물론 따라주었지만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얼마든지 원하는 직업을 찾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모마에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의미 있었던 작업은?

모마에 와서 일한 3년 반 동안 4번의 개인전을 기획했다. 그 중 이번에 열린 <TOKYO: 1955-1970>는 규모도 크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전시다. 전시가 이렇게 선보여질 때까지 2년이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전시라면 전시라고 손꼽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부모의 자식사랑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큐레이터는 자기가 기획한 모든 전시에 그와 같은 애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전시 하나하나가 내겐 특별하고 소중한, 잊지 못할 기억이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며 기량을 펼치고 있는 한인스텝들을 인터뷰하자니 뿌듯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Chul. Kim은 초등학교 무렵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왔고, Doryun Chong은 고등학교 졸업 후, Bonnie Lee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왔다고 한다. 언제, 어떤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하여도 뜻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성과가 따르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향후에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더 많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비단 한국의 문화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뻗어나가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기사의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여 바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사를 마친다.

EVENTS



한국의 태권도 타임스퀘어를 접수하다

글/사진 · 구도영
2012년 6월 19일



U.S. Taekwondo Education Foundation(US TEF), 매년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시범 선보여

U.S. Taekwondo Education Foundation 태권도 시범단이 6월 8일 타임스퀘어에서 <Global Children Taekwondo Festival> 화려한 공연을 펼치면서 외국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 중에는 미국 태권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장들과 Bowie 중학생들로 구성된 시범단은 여러 기본 동작을 모아 구성한 퍼포먼스와 함께 격파, 품세 등을 선보이며 외국관광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2012년 최고의 학교 태권도 팀으로 선정된 Bowie 중학교의 시범도 선보였다.

태권도시범을 관람하는 많은 관객들 가운데 특히 태권도시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관광객들을 만나보았다.

딸과 아들이 태권도 시범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케빈과 데일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학교 수업이어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딸이 태권도를 너무 좋아한다. 발차기하는 걸 특히 좋아하고, 태권도 대회에도 출전한적이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에서 온 ‘조나’는 이 무술이 가라데(일본무술)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한국 무술 인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과 대중적인 무술로 다른 나라에서 점점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의 무술이라는 것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올해로 3년째 이 행사를 개최한 미주태권도교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타

임스퀘어에서 태권도 시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Melting pot of the world’라고 불리는 타임스퀘어에서의 태권도 시범은 쉽게 세계각국의 여행객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태권도가 한국의 무술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작은 시작이 되었다.

한국을 떠올리면 ‘김치’ 등 매운 음식만 생각하는 외국인들과 다양한 한국문화가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번 태권도시범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US Taekwondo Education Foundation
<http://www.ustef.org>

Everyone Can Be an Artist at 5th Ave.

글/사진 · 김두리
2012년 6월 20일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앞에 줄을 선 사람들

지난 6월 12일 화요일, 맨하탄 5번가에서는 제 34회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열렸다.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5번가, 82가 ~ 105가를 막아두고 오후 6시부터 9시, 3시간 동안 5번가에 있는 미국 최고의 아홉 개의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라이브 공연 및 길거리 공연들 다채로운 이벤트를 여는 행사이다.

이 페스티벌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이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된 1978년, 그 당시 뉴욕 미술계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뉴욕에는 미술관 외에도 발레, 뮤지컬, 콘서트 등 즐길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미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 관계자들이 하루동안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독특한 이벤트들을 개최함으로써 박물관과 미술관도 역동적인 문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페스티벌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연간 5만 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축제가 되었다. 또한 지금은 모든 미술관들이 연합하여 축제를 진행한다고 한다.

올해는 행사 당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이 행사는 실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는데 거리공연이나 미술관을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미술관을 가기 위해 모여든 사람도 많았지만 주로 가족이나 연인단위로 찾아와 공연이나 놀이를 즐기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다.

뮤지엄 마일은 뉴욕시가 미술관이 밀집한 지역을 지정해서 만든 명칭이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뉴욕의 많은 뮤지엄들(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뮤지엄, 모마, 구겐하임 등)이 밀집해있는 5번가 중에서도 1마일(약 1.6km), 이곳은 이날 하루 동안 젊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장이자 아이들의 스케치북이 된다. 행사 동안 5번가는 차량 통제가 되어 길 위로 마음대로 걸어 다닐수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거리로 나와 많은 공연을 벌인다. 또한 각 미술관별로 작은 이벤트나 행사를 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중 분필을 나눠주며 아이들이 통제된 길 위에 낙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라고 한다.

이 행사는 실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는데 거리공연이나 미술관을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미술관을 가기 위해 모여든 사람도 많았지만 주로 가족이나 연인단위로 찾아와 공연이나 놀이를 즐기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다.

이 날의 행사는 비록 비가 와서 야외공연이나 다채로운 이벤트들은 많이 없었지만 여전히 뮤지엄 마일이 뉴욕에서 얼마

나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던 행사는 진행된다는 이 행사, 단순히 무료입장이라는 사실외에도 미술관 별로 자신의 색깔이 담긴 기획전이나 이벤트를 열어 각각의 입지를 다지고 길거리를 자유로운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내줌으로 아티스트들과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그 존재와 의미자체를 알리는 참 ‘똑똑한 페스티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를 돌아보며 같은 성격의 관광지가 몰려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좋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도 하루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도 뉴욕의 뮤지엄 마일처럼 특성화된 장소나 행사가 있다면 그 자체로 테마가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삼국시대 역사를 알수 있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한데 묶어 테마파크 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각각의 미술관들이 매년 함께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서로 경쟁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상호 발전을 하는 점도 이 페스티벌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싶었다. 벌써 내년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기다려진다.

Taste of Korean Temple Food Week 2012 행사 되돌아보기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을 넘어 사찰음식

글/사진 · 윤혜수
2012년 6월 21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과 배려가 가득한 상차림입니다.”

버섯 강정 한 입에 송(松)차 한 모금, “벌써 영혼이 깨끗해진 느낌”

손으로 만드는 음식이 아닌,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



6월 13일 사찰음식 만들기 시연 후, 환한 미소를 짓는 대안 스님

지리산의 금수암 주지이자, 사찰음식의 대표 레스토랑 ‘발우공양’의 대표인 대안스님의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 앞에 경건한 마음이 들게 했다. 나의 옆자리에 앉은 금발의 청년도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신중하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외국에 잘 알려진 한국 음식 하면 으레 떠올릴 만한 것은 주로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가진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찰음식이 한식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며 뉴요커들에게 소개되었다.

Taste of Korean Temple Food Week 행사는 6월 12일부터 14일(현지시각 기준), 3일간 뉴욕 맨하탄의 에스터 센터(Astor Center)에서 언론관계자, 음식전문가,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사찰음식행사는 사찰음식 만들기 시연, 오찬과 뷔페, 만찬 등이 열렸다. 행사 마지막 날,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만찬에는 뉴욕현대미술관의 Senior Film Curator인 Laurence Kardish, Jamaica Center for Arts&Learning의 Director인 Philip Willis등 현지 문화계 주류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본격적으로 저녁 코스메뉴가 시작되기 전, 간단한 핑거푸드 준비되었으며, 해남 백년사에서 직접 가져온 ‘지혜의 차’라는 뜻을 가진 ‘반야차’로 진행된 다도 시연과 인경 체험이 본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꾸며주었다.

사찰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요리다. 사찰음식을 처음 접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이라면 “에게, 이게 다야?” 하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요리 하나 하나에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음식들이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듣다 보면 저절로 허리가 곧게 펴진다. 정성이 담백 담긴 음식에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살구 떡을 넣은 오미자차와 감자, 고구마, 사과, 김 등을 말려서 만든 과자가 식전에 준비되었다. 말린 과자들은 모두 끓는 물에 데친 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 하나 사람의 손으로 얇게 잘라 3일간 햇볕이 잘 드는 방에 말린 것이다. 저녁 메뉴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먼저 감자를 먼저 잘라 갈라 콩국물에 소금 양념을 한 감자국수, 된장과 유자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 버섯을 튀겨 고추장 양념을 한 버섯강정, 김치 찜이 차례로 나왔다. 그리고 한 상 차림으로 밥과 들깨국, 여덟 가지 오색 반찬이 눈앞에 펼쳐졌다. 오이를 올린 두부, 버섯과 연근 조림, 잣으로 만든 드레싱을 뿌린 죽순과 청포묵 샐러드, 고추장과 된장을 이용한 장떡, 가축나물과 호박 무침, 간장과 조청에 조린 우영, 짓갈이나 파마늘을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김치는 한두 쪽 씹만 담겨 나와 입맛을 더했다. 절에서 담그는 김치는 강한 맛을 내는 짓갈과 파마늘을 쓰지 않는 대신 직접 담근 간장과 사과, 그리고 배를 사용하여 맛을 낸다고 한다. 후식으로는 오미자와 흰콩으로 만든 양갱과 제철과일이 나와 상큼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찰음식은 알고 먹었을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한다. 반찬 한 가지에서도 먹는 이를 생각한 사려 깊은 마음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 차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난무하는 요즘, 사찰음식은 이와 정반대로 알면 알수록 음식을 더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제 때 먹고, 제철에 나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찰음식의 원칙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저녁식사였다.

식사가 마무리 될 즈음, 대안 스님은 “1년 간 자연 발효시킨 소중한 음료”라는 말을 몇 차례나 강조하며 강한 애정이 깃든 듯한 송(松)차를 소개했다. 향긋한 내음이 맡아지는 송차는 향아리에 술잎을 가득 담고 설탕만으로 간을 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발효되었기 때문에 소량의 알코올 성분을 가진 송차의 깔끔한 맛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앉았던 테이블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 날 저녁메뉴는 버섯강정으로 당첨되었다. 아무래도 구미를 당기는 찰진 고추장 양념과 바삭한 튀김 속의 보드라운 버섯의 질감이 모두를 사로잡은 듯했다. 식사를 마친 한 프리랜서 작가 여성분은 “사찰음식을 모두 먹고 나니, 벌써 영혼이 맑아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개 개인의 독자적인 정체성 뚜렷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중심지인 뉴욕은 채식주의자의 천국이다. 어느 모임에서나 어렵지 않게 채식주의자를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정체성이자 문화로 생각하고, 자연과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채식주의’도 커다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자연친화적이며 먹는 이의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는 한국 사찰음식은 뉴요커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리라 짐작된다.

대안 스님은 사찰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요리사들에게 딱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한다. 첫째는 마음에 넉넉한 자비심을 가지고 요리를 할 것과, 둘째는 언제나 먹는 이의 안전과 청결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 스님의 가르침에서 한국 사찰음식에 담긴 소중한 우리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화려함 대신 정갈함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맛 대신 담백한 맛을 내는 한국의 사찰음식은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전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Korean Flavor Exposed with Angelo Sosa

글 · 이화영
2012년 6월 25일

맨하튼 미드타운의 화요일 저녁, New York의 Star chef이자 미국 내 최고의 버거로 선정된 Bibimbap hamburger를 만들어낸 Chef. Angelo Sosa가 그의 새로운 책 “Flavor Exposed” 및 그의 요리를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Angelo Sosa의 첫 번째 요리책 “Flavor Exposed”는 아시아의 전통적 풍미를 서구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특유의 요리법을 일반 대중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 앞에서 요리하며 그의 책에 소개된 레시피를 따라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오븐과 사랑에 빠졌었다는 Angelo Sosa는 유명세가 무색할 정도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미소를 띄며 유머를 쉬지않고 던지는 보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사의 이미지와는 달리, 농구선수를 연상케 하는 키와 잘생긴 얼굴은 요리사가 아닌 연예인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Sosa의 요리철학 및 요리를 소개하기 이전에 그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음식을 사랑하는 도미니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는 항상 “넓은 세계를 보고 문화를 느껴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한다. 이것이 후에 그가 아시아의 맛을 찾아서 여러나라를 여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한국의 맛에 반하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그의 요리철학은 한마디로 맛을 통해 스토리(story)를 전달하고, 음식의 풍미 자체를 존중(respect)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모호할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는 맛과 향을 통해서 인생의 추억들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된장찌개의 향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 고향의 추

억 혹은 어린시절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음식의 맛과 향은 우리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는 한국의 음식에 사랑의 빠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내 요리는 존중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나의 요리를 먹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요리의 재료를 존중한다. 한국사람들은 존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한국사람들을 사랑한다.” 특히, 한국 음식들의 경우에는 요리법이 긴 세대에 걸쳐서 보전되어왔고, 재료 또한 그 취급 및 저장에 있어서 특별한 관리(care)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맛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점들 및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을 말했다. 전라도에서 고추장, 된장 및 간장을 전통적으로 만드는 곳에 방문했을때 정말 신성(holy)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는 말했다. 그곳에서 고추장을 처음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을때의 느낌이 어땠냐고 묻자,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현재는 된장을 직접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한국 음식 애호가였다.

비빔밥 햄버거의 성공이후, 한식 세계화 추진단 명예회장인 김윤옥 여사님이 직접 Sosa의 레스토랑인 ‘Social Eatz’에 방문해 비빔밥 버거를 시식하였다고 한다. 김윤옥 여사님 방문시 그는 TV리얼리티 쇼 Top chef에서 비빔밥 버거로 우승한 후 받은 요리사 가운을 선물하였다. Sosa는 실은 이 가운을 장애가 있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선물할 예정이었지만, 김윤옥 여사님의 방문이 자신에게 너무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선물로 드렸다고 한다. 김윤옥 여사님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Sosa를 2011 Korea Food Expo에 지난 2011년 9월 초청하였다.

이야기가 끝난 후, Sosa의 음식을 기다리는 많은 참석자들을 위해서 Sosa는 돼지고기와 고추장을 이용한 꼬치 요리를 선보였다. 미리 완성된 음식들이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오이김치와 고추장으로 양념된 닭고기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다. 닭고기의 따뜻함과 오이의 차가움, 양념의 붉은 색깔과 오이의 초록색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시각, 후각 및 촉각을 모두 만족시켜 주었다. 또한 와인과 조합도 인상적이었다. Sosa는 자신의 이런 한국음식의 서구적, 현대적 해석이 서양인, 특히 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음식을 시도하게 하고 나아가 더 관심을 갖고 한국 전통음식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되고싶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더욱더 토속적인 한국요리를 서구적으로 재해석해볼 계획이라고 한다.

각 나라의 고유한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적 환경, 문화적 관습 및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의 총체적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 음식은 생활의 일부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맛’이다. 하지만 Sosa와 같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해석하는 한국의 맛이란 아주 새롭고 신선한 맛일 것이다. 그가 책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레스토랑 ‘Social Eatz’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도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아닐까. Sosa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음식이 좀더 많은 뉴요커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세련되게 다가갈 기대해본다.

제11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NYAFF): 최민식을 만나다

글 · 구도영
2012년 7월 12일



‘범죄와의 전쟁(Nameless Gangster, 2011)’ 배우 최민식 참석 Q&A (사진: 임승준)

6월 30일, 뉴욕한국문화원 주최로 제11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NYAFF) ‘한국영화제’ 오프닝 리셉션이 링컨센터 월터리드 극장(Walter Reade Theater)에서 열렸다. ‘최민식 회고전’ 개최를 계기로 배우 최민식을 초청 ‘올드보이’, ‘범죄와의 전쟁’, ‘파이란’, ‘주먹이 운다’ 등 그동안 그의 이름을 관객들에게 각인시켜주었던 다채로운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배우 최민식은 “책임감이 느껴진다.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 자신이 주연한 영화들을 상영하고 더욱이 리셉션자리까지 초대해주셔서 더욱 열심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제11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NYAFF) ‘한국영화제’ 오프닝 리셉션에

는 Goran Topaloviz(집행위원장) 진행으로 시작했으며 최민식 배우와 정창화 감독이 참석하여 오프닝 리셉션을 빛냈다. 오프닝 리셉션 후에는 ‘범죄와의 전쟁(Nameless Gangster, 2011)’ 상영과 배우 최민식 참석으로 Q&A를 진행했다.

영화상영 전 뉴욕아시안영화제에서 선물을 받은 후 “오프닝 리셉션에 초대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받아서 너무나 감동했다. 영화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교류를 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갱스터영화’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가 다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2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히트작이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범죄와의 전쟁”의 인기가 뉴욕에서도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영화시작 전부터 링컨센터 월터 리드 극장(Walter Reade Theater)앞에서 기다리는 관객들의 끝이 안 보이는 행렬로 이어졌다. 영화상영 후 관객들은 자신의 평점을 이야기 하는 듯 뜨거운 박수로 이어졌다.

제11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NYAFF)는 링컨센터(Lincoln Center) The Walter Reade Theatre (165 West 65th Street)에서 7월 15일까지 열린다.

뉴욕의 또 다른 MoMA, MoMA PS1에서 펼쳐지는 한 여름 밤의 파티

글/사진 · 김두리
2012년 7월 30일

뉴욕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관 MoMA(The Museum of Modern Art)의 또 하나의 작은 MoMA, 바로 MoMA PS1(Public School)의 약자인 PS는 고등학교 건물을 리디자인하여 미술관으로 이용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MoMA PS1은 MoMA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처음 이 미술관의 이름은 PS1 Contemporary Art Center이었다. 이름과 걸맞게 이곳은 과거 유물적인 명작보다는 새로운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현대미술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자 했던 미술관이었다. 이곳을 만든 건 1971년에 설립되었던 미술과 도시 자연협회(the Institute for Art and Urban Resources Inc.)로서, 버려진 건물들을 재건축하여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스튜디오와 전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비영리 조직이었다. 그들의 노력이 버려져 있던 18C 공립학교를 훌륭한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켜놓았고 2000년, MoMA와 결연을 맺고 MoMA PS1으로 재 탄생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MoMA PS1에서는 매년 여름, 두 달여 동안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올해로 15년을 맞이하는 MoMA PS1 워업 파티(WARM UP PARTY)는 7월 7일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실험적인 사운드의 음악, 퍼포먼스, 디제이들을 불러놓고 한여름 밤에 미술관으로 뉴요커들을 불러들인다.

특히 올해는 15주년 기념해로 여러가지 이벤트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 이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MoMA PS1이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Wendy이다. Wendy는 4월 중순, 뉴욕 모마(Museum of Modern Art)와 PS1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YAP(Young Architects Program)*의 당선작으로 HWKN(Matthias Hollwich and Marc Kushner, New York)의 작품이다. YAP이 추구하는 재활용, 친환경,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에 걸맞게 이 거대 설치물은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나노입자 스프레이 처리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만들어져 260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양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만들어졌는데 자원봉사의 혜택은 워업 파티와 MoMA PS1 전시 관람 티켓이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공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대단한 기술과 힘을 요하는 게 아니었다. 공사/목 공장/샌드위치 만들기/페인팅 네 항목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무 기술도 없다면 샌드위치 만들기로도 공사에 일조를 할 수 있었다. (당시 봉사자를 모집하던 사이트에는 공사나 목수 일을 하고 싶더라도 연장 등을 가져올 필요없이 몸과 열정과 낡은 옷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었다.)

이 행사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특색은 바로 학교에서 펼쳐지는 파티라는 점이다. 오래된 학교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미술관답게 이곳은 미술관과 학교의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마룻바닥을 떠올리게 하는 교실 바닥과 아이들이 뛰어다녔을 것만 같은 계단이 추억에 잠기게 만들었다. 특히 교실 별로 들어가 작가 별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도 이색적이었다. 작지만 그 공간전체가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 마치 하나의 미술관이 아닌 여러 명의 작가의 갤러리에 온 기분이었다. 그 때문에 각 작가의 작품에 좀 더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었고 작가들도 본인들의 공간에 자신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더할 수 있어 실제로 관람한 작품 중에서는 창문이 열린 정도, 바람, 빛으로도 작품을 구성하고 의미를 더하고 있었다. 마치 이 교실 저 교실을 오가며 재미있는 체험학습을 하는 기분이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실험적인 미술작품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 건물의 원래 의도를 이어 신선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 되어 있었다.

미술관을 다 보고 난 후에는 야외무대의 파티를 즐기면 된다. 매주 파티의 특색이 조금씩 바뀌지만 대부분 디제이공연과 락공연이 주를 이룬다. 미술관 입장 시 아이디 검사 후 손목에 입장권을 채워주는데 각각의 색깔에 따라 음주의 허용



학교 앞에서 펼쳐지는 파티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여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행사는 술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데 행사가 열리는 곳이 미술관임을 감안하면 정말 이색적인 축제가 아닐 수 없다. 하얀 벽, 한없이 조용한 미술관, 사색에 잠긴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관의 모습인데 MoMA PS1은 그 모든 틀을 깨고 있었다. 시끄럽게 파티를 여는 술을 마시고 춤추는 미술관이라니. 도저히 미술관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독특한 미술작품만큼이나 미술관의 축제를 즐기는 방법도 MoMA PS1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자 설치된 야외무대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사실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는 특별한 밴드의 공연을 관람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무대가 막이 오르자 예상과 달리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다. 인기 연예인들을 불러두 세곡 노래를 듣고 연예인들이 떠나면 우르르 빠져나가는 한국의 많은 행사들과는 많이 달랐다. 무대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기도 하고 담벼락 밑에 주저앉아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등 편안하고 신나는 토요일 밤이었다. 또 한 가지 이색적이었던 것은 무대에서 보이던 불 켜진 학교의 모습이었다. 마치 학교 앞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놓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게 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 나와 교문 앞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춤을 추며 노는 나의 모습은 묘한 쾌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마치 모두 조용히 하라며 선생님이 뛰쳐나올 것 같은 불안함과 함께.

9시가 되자 관계자가 나와 감사인사와 파티가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나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 동안 친구들과 혹은 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토요일 밤의 열기'가 식어감을 아쉬워 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편안한 복장으로 친구들과 혹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토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였다. 작은 무대에 그렇다 할 가수의 공연은 없지만 파티가 열리는 때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즐기며 그 순간을 만들어간다는 점이 이 파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꼭 특별하지 않아도 가볍게 안부를 묻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서로의 한 여름, 어느 토요일 밤을 만들어가며 말이다. 뜨거운 여름 밤, 독특하고 특별한 뉴욕의 이벤트를 맛보고 싶다면 MoMA PS1의 워업 파티를 추천한다.

* MoMA PS1의 워업 파티 스케줄 확인하러 가기 → <http://momaps1.org/warmup>

* Wendy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 <http://vimeo.com/41293145>

* YAP(Young Architects Program): 해마다 젊은 건축가 다섯 팀을 초청해 경연을 펼치는 이 행사는 PS1 미술관의 '워업(Warm Up)' 파티를 위한 옥외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채택이 되던 안 되던 초청된 다섯 팀의 설계안은 모마 PS1 행사 기간 중 전시회를 갖는다.

Preview of the North American Premiere of the Hit Korean Movie, *The Client* (의뢰인)

By Regina Kim
August 11, 2012



Korean superstar actors Ha Jung-woo (*The Chaser*, *Nameless Gangsters*) and Jang Hyuk (*Windstruck*, *Volcano High*) star in this 2011 suspenseful crime thriller directed by Sohn Young-sung. Jang Hyuk plays Han Chul-min, an eccentric man who comes home one day carrying flowers for his wife, only to find his apartment surrounded by neighbors and the police. In his bedroom he discovers a pool of blood, and the police arrest him as a suspect for the murder of his wife. While the blood is confirmed to be that of Han's wife, her body is nowhere to be found, and the police are unable to find any hard evidence linking Han to the murder of his wife.

Enter Kang Sung-hee (played by Ha Jung-woo), a confident and talented lawyer who is given Han's case and may be Han's only chance of defending himself. Kang's efforts to clear Han's name, however, are often foiled by Prosecutor Ahn Min-ho (played by Park Hee-soon), a former law school classmate of Kang who seems eagerly bent on winning the case and

prevailing over Kang. Mysterious details are revealed as the plot unfolds, leading the viewer to raise many questions about the possible identity of the murderer, and to even wonder if Han's wife is actually dead. A missing body, the existence of only circumstantial evidence, and a relentless prosecutor who will stop at nothing to bring down Han—full of twists and turns, *The Client* will keep you glued to your seat and your brain in constant detective mode.

Premiering in North America on Tuesday, August 14th, at Tribeca Cinemas as part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Korean Movie Night series, *The Client* was a blockbuster hit in South Korea, raking in over 15 million (in USD) at the box office.

Date: Tuesday, August 14th

Time: 7pm (doors open at 6:30pm)

Place: Tribeca Cinemas (54 Varick Street, at Canal Street)

FREE admission, seating is first-come, first-served!

Preview of the Controversial Film *Unbowed* (부러진 화살)

By Regina Kim
August 15 2012



Every once in a while, there comes along a movie that is so powerful and shocking that it leaves an indelible impact on an entire nation and even generates social change. But in 2011, South Korea premiered two such films in one year—*The Crucible* (도가니), a disturbing film about sexual abuse committed against deaf children that l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ssing a stricter law on sex offenders, and *Unbowed*, a film that caused South Korea's judiciary system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public's concerns over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its legal proceedings. Based on actual events, *Unbowed* (부러진 화살) is a 2011 South Korean courtroom drama film directed by Chung Ji-young and starring Ahn Sung-ki, Park Won-sang, Na Young-hee, Kim Ji-ho, and Moon Sung-geun. It tells the story of Kim Kyung-ho (played by legendary actor Ahn Sung-ki), a math professor who is fired from his university for pointing out an erroneous math question on the university's entrance exam. In an effort to get his job back, Kim takes the issue to court, only to have the judge rule in

favor of the university. Believing that the judge made an unfair decision, Kim takes a crossbow to the judge's residence one night and tries to shoot him. Whether he actually shot him, however, is unclear.

Kim is subsequently arrested and taken to prison. What ensues is a nationwide media frenzy over the "Crossbow Terror Incident" and months of agonizing trials for Kim. Kim goes through a string of defense attorneys before finally meeting Park Joon (played by Park Won-sang), an alcoholic lawyer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Park tirelessly fights for Kim, although Kim, who has studied the law thoroughly while in prison, is often shown to talk more in court than his lawyer.

Sadly and surprisingly, Kim is constantly denied a fair trial—all of the evidence presented is more than suspect, and all of the judges seem to have already made up their minds that Kim is guilty. A gripping story of one man fighting against the system, *Unbowed* sparked a national

debate over perceived biases within South Korea's court system, as well as over how much of the story is actually true. Viewers were divided over the accuracy of the film's portrayal of events, but one thing is for sure—it was and will remain a movie to be much talked about! No society is perfect, and the movie goes to great lengths to show some flaws that still exist in modern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power that the elite still hold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saving face and preserving one's reputation.

Unbowed was a box-office hit in South Korea, grossing over 21 million USD over a period of five weeks. The Korean Cultural Service will be screening the movie on Tuesday, August 28th, at Tribeca Cinemas as part of its Korean Movie Night.

Date: Tuesday, August 28th

Time: 7pm (doors open at 6:30pm)

Place: Tribeca Cinemas (54 Varick Street, at Canal Street)

Admission is FREE and first-come, first-served

2012 NY K-pop Festival Interview with American Idol Finalist Hee Jun Han

By Regina Kim
September 5, 2012



Audience dancing to Big Bang's "Fantastic Baby" during the break (Photo by Regina Kim)



Festival performers dance to Psy's "Gangnam Style" (Photo by Regina Kim)

On August 31st at the NYU Skirball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4 solo and 5 group contestants took over the stage to compete at the 2012 New York K-pop Festival hosted by the Korean Cultural Service. In its second year, the New York K-pop Festival showcases performances by K-pop fans in front of a live audience. Contestants are ranked at the end according to a combination of the judges' scores and the audience's votes, à la American Idol.

This year the festival featured songs by SHINee, the Wonder Girls, and Big Bang. Some of the contestants chose to sing, while others chose to dance to the songs. The festival opened with a lively dance performance of the viral mega-hit "Gangnam Style" by Psy, for which all of the contestants danced together on stage.

As the contest was underway, an audience of about 150 people, most of them between the ages of 12 and 18, cheered the contestants on, but the dance group I Love Dance seemed to already be a crowd favorite when the group came on stage. However, in the end it was a solo performer, Nicole Mastrodomenico, who won first place with her soulful acoustic rendi-

tion of "Replay" by SHINee. I Love Dance finished in 2nd place with their mesmerizing dance performance of "Sherlock" by SHINee, while another dance group, HARU, danced their way to 3rd place with their own lively performance of SHINee's "Sherlock."

Judges included Jung Bong Choi, a professor of cinema studies at NYU; Hee Jun Han, who finished in 9th place on this year's American Idol; Donnie Kwak, senior editor of ESPN The Magazine; and Benjamin Meadows-Ingram, music editor at Billboard magazine. Hee Jun Han also gave a special vocal performance of "When a Man Loves a Woman" at the end of the festival, to which the audience applauded enthusiastically.

I sat down for a brief interview with Mr. Hee Jun Han right before the festival to find out his thoughts on the K-pop Festival, as well as the Hallyu phenomenon that is finally starting to make waves in the United States.

I heard that you're going to be giving a special performance today. What song will you be singing, and why did you choose that song?

Hee Jun Han: I'll be singing "When a Man Loves a Woman" by Percy Sledge. It's my favorite song. If you sing it with a live band, it sounds awesome.

You're a Korean who went on American Idol and performed English-language songs. And today, you'll be seeing many non-Koreans going up on stage performing K-pop songs, here in America. What do you make of this? K-pop has already become mainstream in many other countries, but do you think K-pop will ever become mainstream in America?

We're fortunate. I'm so proud to be part of this whole thing. Back then, who knew K-pop would become dominant in the music industry? I do believe that many of my supporters are also fans of K-pop.

I got to work with the core members of the American music industry when I was on American Idol. They didn't have any ideas about K-pop—they're just hearing about it now. But we should definitely look forward to seeing K-pop's potential and K-pop becoming a hit [in the United States].

I talked with Jimmy Iovine and Will.i.am, and they talked about how K-pop will dominate the mainstream anytime soon. They're both fans of K-pop. Jimmy is the co-founder and owner of Interscope Records. He signed the K-pop group Girls' Generation onto Interscope.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core members know about K-pop, so I think we'll see K-pop exploding soon.

Any advice for Asians and Asian-Americans who want to break into the American music industry but find it difficult due to stereotypes, etc.?

A lot of artists from South Korea who are huge stars over there never made it far when they came to the U.S. When you're a star in Korea, other Asians support you because you're Korean and you act Korean. But whenever these Korean artists crossed over to the U.S., they tried too hard to conform their music to suit the Western audience. They sang in English when they could barely speak it.

Look at Psy. His song is in Korean, but it's become a huge internet phenomenon. Psy's song came at an opportune moment. K-pop is growing, and Psy released his song at the right time. Asians are Asian; we can never



All the contestants pose for a group picture at the end of the festival (Photo by Regina Kim)

The Power of Korean Food Revealed by Todd English: 한국 식자재 홍보행사 리뷰

글/사진 · 윤혜수
2012년 9월 5일

be white or black. We have certain things we can bring to the table, something that's fresh and something that Americans have never seen. So we can bring something to the music industry if we stay true to ourselves and to our identity.

I think there are three important things Korean artists need to focus on if they want to succeed in the U.S. First, music-wise, American listeners have lazy ears. They just want to listen. They don't want to sing along. This means that you have to make a great song.

Second, you also have to have the right presentation. It doesn't have to be Americanized, but a reflection of who you are. If you try to be something you're not, American listeners can tell. So you have to be who you are and appreciate what you have.

Third, you need to know your audience very well. In Asia, teenagers move the music business. But in the States, tweens and the 30-40 age group move the industry because they're the ones who open their wallets. If you're 18

to 20-something, you won't open your wallet because in the States, you work hard at that age, so you're not going to spend your money or spend as much time to support the artists.

So these three things—great music, great presentation, and know your audience—are essential.

Korean music stars focus only on commercial marketing. If they focused on the music more, they'd be taken more seriously. When you're in Korea, you're a star and go on variety shows and shoot a number of commercials. But when you come to the U.S., you have to focus on your music. K-pop stars are too focused on catering to their fans and don't focus enough on their profession as music artists.

(Korean music reps, are you reading this?)



음식 시연을 준비하는 Todd English

2012년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뉴욕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에 위치한 W Hotel의 The Great Room에서 “The Power of Korean Food Revealed by Todd English”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 식자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총영사관 주최하였으며, 국순당, 한국인삼공사, 진로하이트, 오투기 등 총 8개의 생생한 한국 식품 업체가 참여했다. 각 업체에서 주력하는 품목을 활용하여 뉴욕의 셀레브리티 셰프(celebrity chef)인 Todd English가 음식 시연을 펼쳤다.

관중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자 Julie Chang의 유쾌한 진행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Todd English가 직접 음식 시연을 펼치기 앞서, 한국음식의 장점을 분석한 “What is Great about the Korean Diet?”, 그리고 미국 식품시장에 관련된 “Specialty Food* Market in America” 발표가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초일 박사는 비만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채식 위주인 한국음식이야말로 “웰빙 식품”으로 주목 받을 만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음식은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토마토를 제외한 야채 섭취량이 가장 높으며, 지난 50년간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두드러지게

급증한 사실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맞게 발전한 균형 잡힌 한국인의 식습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Christian Aldana는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pecialty Food 시장에서 향후 한국 식자재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관중들의 기대 속에 참여 업체들의 식자재를 활용한 Todd English*의 음식 시연이 이어졌다. Todd English는 그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Olives를 포함한 다수의 인기 레스토랑 오너이자, 요리와 관련된 각종 출판물과 책, 그리고 TV프로그램, 푸드 쇼(Food show) 등을 진행하는 셀레브리티 셰프이다. 이전에도 한국음식 시연회를 가진 경험이 있는 그는 이날 행사의 메뉴로 6가지 코스를 준비했다. 참치 타르타르(Tuna Tartar), 오리 콩피 롤(Duck Confit Roll), 불고기 바비큐(Barbecued Bulgogi), 치킨 카레 미트볼(Mini Chicken Meatballs), 양 갈비(Lamb Ribs), 그리고 새우튀김(Crispy Rock Shrim)의 요리가 시연이 진행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서빙되었다. 모든 음식들은 한국 식품 업체에서 홍보하는 식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부스에서 음식 시연에 이용된 상품의 샘플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행사 종료 후, Todd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했고, 나 역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다. 그는 한국음식을 요리해본 경험이 이미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요리와도 매우 친숙하다. 다양한 요리 경험을 가진 Todd에게 “다른 아시아 지역의 요리와 비교하여 한국음식만의 특별한 점, 혹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한국음식은 맛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매운 맛, 짠 맛, 단 맛, 담백한 맛 등 다양한 미각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 이유는 “한국의 다채로운 양념과 고유한 조리법”에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같은 바비큐 요리라고 할지라도 일본식 바비큐와 한국식 바비큐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면 “한국음식에 야채가 많이 포함되어 건강에 좋다고는 하나, 육류에 익숙하고 고기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에게 매력을 갖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 재료 차이로 인해 조리 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묻자 Todd는 “미국 내에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미국인들의 식생활의 주는 고기이며, 그들이 여전히 고기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But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we are trying. (그렇지만 우리 미국인들이 야채를 더 많이 먹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라며 웃으며 답변했다.

내가 위와 같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번 행사에서만 봐도,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음식의 “건강함”을 내세우며 흥

보한 것과 달리 메뉴 구성의 반이 결국에는 고기를 사용한 요리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식자재를 사용하여 관중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맛 역시 일품이었지만, “웰빙음식”이라는 한식 홍보 전략과는 상충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Todd는 “물론 처음부터 나물이나 무침과 같은 건강한 한국음식을 처음부터 소개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미국인에게 친숙한 고기 요리를 통해 한국의 양념과 한국적인 맛에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 뒤, 고유한 재료와 양념을 사용하여 “진정으로 한국적”이라고 할 만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그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음식은 “김치”라고 밝혔다. 예전에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고, 현재 32가 한인타운 근방에 살고 있는 Todd는 한국문화나 음식에 익숙한 편이다. 그래서 그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등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김치를 좋아한다. 또 한국음식에 마늘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한국음식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며, 직접 한국에 방문했을 때 더욱 풍성한 (재료의) 맛을 자랑하는 한국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한식 세계화”는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주요 과제임에 틀림없다. 심각한 비판과 건강문제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한식의 “건강함”은 아주 매력적인 측면이다. 맛도 맛이지만, 한식을 홍보할 때 “

웰빙”은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략임에 틀림없다. 한상차림에 올라오는 반찬 중 대부분이 야채를 사용한 나물이고, 고기나 생선 요리를 할 때에도 꼭 야채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놓치기 쉬운 한국 음식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를 잘 살려 홍보하고, 웰빙음식으로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굳힌다면 한식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구인들이 기뻐진 음식과 육류를 선호하며, 이와 같은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Todd의 조언과 같이 처음에는 서구인들에게 친숙한 고기나 생선 요리, 혹은 면요리에 야채를 활용하면서 한국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양념, 풍미, 조리법 등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요리를 “선보이는 지” 역시 관건이다. 즉, 어떤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가진 식당에서, 어떤 요리를 어떤 용기에 어떻게 담아내는가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식만의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뉴욕의 거리를 걸어보아도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일본, 태국음식에 비해 한인타운을 찾지 않는 이상 한국음식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일상적인 식사 메뉴로 한식을 찾는 외국인도 아직 적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한식의 대표적인 메뉴 선정과 이미지 확보에 대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한국



음식 시연 메뉴 중 하나였던 오리 콩피 볼

음식 중 현재까지 홍보에 주력했던 품목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인데 사실상 비빔밥을 제외하고서는 식사라기보다는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반찬’ 개념이다. 반찬의 경우 태국음식하면 팟타이, 일본음식하면 라멘 혹은 스시(롤), 중국음식하면 덤섬과 같이 ‘이미지화’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차라리 김치를 활용한 ‘김치볶음밥’, ‘김치전’ 혹은 불고기를 활용한 ‘불고기 덮밥’처럼 구체적이고 이미지를 구축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떡볶이나 김밥, 각종 라면 등 분식/길거리음식은 이미지화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만하다.

무궁무진한 활용법과 맛을 가진 한식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가능성과 발전 더욱 기대된다. 또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외식산업의 도전적인 해외진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총영사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학술적으로 한식의 효용을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 식자재를 홍보할 수 있었던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패기 넘치는 한식 요리사들의 끊임없는 매뉴개발과 식품연구,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와 유통을 위한 민간과 기업, 정부의 지원과 협력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향후에는 해외에 진출한 특색 있는 한식당들이 크게 주목받아 한국 음식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보는 바이다.

* Specialty Food: Specialty food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질과 유통에 관련하여 고맷(Gourmet), 유기농(Natural, Organic), 수입(Imported), 그리고 지역(Local grocery) 식품의 특징을 가진 품목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된다.

* Todd English: 미국 Texas 출생의 Todd English는 유명 요리사이자, 레스토랑 오너, 요리 작가, 기업가, 그리고 PBS 요리 TV 프로그램인 <Food Trip with Todd English>의 진행자이다.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를 졸업한 그는 뉴욕 레스토랑 La Cote Basque의 Jean-Jaques Rachou 아래에서 일했으며 이탈리아로 건너가 몇몇 레스토랑에서 요리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1989년, 그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레스토랑 Olives를 오픈하기 이전까지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Michela에서 주방장을 맡았다. Todd는 Boston에서 그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이자 첫 레스토랑인 Olives를 오픈했고, 현재까지 Las Vegas와 Manhattan, New York에 두 지점을 더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중해풍 요리를 선보이는 Olives는 Boston Magazine의 Best New Restaurant, Gourmet Magazine의 Best Food and Top Table 등에 선정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자를 주 메뉴로 하는 Figs와 Beso, Kingfish, Bonfire 등 다양각색의 다양한 레스토랑을 미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Todd English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cheftoddenglish.com를 참조하면 된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thepower-ofkoreanfood.com을 참조하면 된다.

지속적인 한류를 위하여: New York Fashion Week <Concept Korea> 리뷰

글/사진 · 윤혜수
2012년 9월 24일



최복호 디자이너의 무대



왼쪽부터 계한희, 최복호, 썬 정완, 김홍범 디자이너

한국의 색, “오방색”으로 뉴욕패션 위크를 물들이다

한국드라마, 한국음악, 한국음식 등 기존의 한류열풍의 주역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한류”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로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맺어진 결실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Concept Korea>.

2010년 봄에 시작된 컨셉코리아는 한국패션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디자이너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된 합동 프로젝트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대구시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주최한다. 올해의 봄/여름 2013 뉴욕패션위크(New York Fashion Week)에는 계한희, 김홍범, 손정완, 이상봉, 최복호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 4대 컬렉션으로 손꼽히는 뉴욕패션위크를 맞이하여 올 가을에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뉴욕 맨하탄 곳곳에서 패션쇼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Concept Korea는 그 중 두번째날인 9월 7일 금요일(현지시간), 뉴욕패션위크의 공식 무대인 링컨센터 “더 스테이지”에 올랐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와 오행을 상징하는 청, 황, 적, 흑, 백의 한국 전통 오방색이다. 5명의 디자이너가 각기 개성에 맞는 오방색을 맡아 독창적으로 자신들의 패션에 담아내었다. 행사는 현대무용의 창시자인 마사 그레이엄이 창설한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의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5명의 무용수가 한국 전통민요인 ‘아리랑’ 곡조에 맞추어 동서양의 느낌이 절묘하게 결합된 무대를 펼쳤다. 평범한 런웨이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오프닝으로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순간이다. 5명의 무용수들을 위해 5명의 패션디자이너가 각각 한 벌씩 특별 제작했다는 사실이 퍼포먼스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다섯 가지 색깔, 그리고 다섯 명의 디자이너

계한희 디자이너는 학원폭력과 왕따,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억눌린 현대 젊은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각적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가볍게 형상화하여 그녀의 의상에 표현해내었다. “아름다운 한국의 색깔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수차례 강조한 최복호 디자이너는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손정완 디자이너는 우아하고 여성미가 돋보이는 의상으로 선보였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사뭇 향수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무대에 올렸고, 동대문 출신의 김홍범 디자이너는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성을 확보한 무채색 계열의 의상으로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것은 최복호 디자이너의 의상이다. 그의 의상은 화려한 색깔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예술은 사회를 반영한다”는 그의 패션철학에도 공감했기 때문에 그의 의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한국 대구를 기반으로 40년간 활동해온 최복호 디자이너는 한국의 색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뉴욕 패션위크 진출이 그에게 갖는 의미를 묻자 “뉴욕의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색깔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답하며 “나는 단순히 내 옷을 알리거나 팔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색깔과 의상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복호는 “동양적인 색상과 소재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극찬과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이미 몇몇 뉴욕 소재의 편집 매장에서 그의 의상을 찾아볼 수 있다. 최복호는 뉴욕에서 자신의 옷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패션

참여 디자이너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물론 뉴욕패션위크의 창시자인 편맬리스도 발걸음하여 관심을 모았다. 그녀는 “5명의 디자이너의 옷이 모두 개성 넘치며 아름답다. 미국에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보인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상봉, 손정완 디자이너와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한 중견 디자이너에서부터 25살의 젊은 신진 계한희 디자이너까지 5인 5색의 독창적인 패션쇼는 미국에 한국적인 패션감각을 홍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더욱이 행사장에는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비트가 울려 퍼지는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컨셉코리아에 대한 현지 호응도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참가 디자이너들이 미국에서 유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통망 정보와 현지매장입점 등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나 한국음악을 통해 일기 시작한 한류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안주’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문화로서의 한국문화’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컨셉코리아와 같은 협력 프로젝트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한국의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에게는 뉴욕패션위크의 공동 패션쇼에 참여하는 것이 장차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자기만의 색깔로 브랜드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첫걸음 혹은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concept-korea.org를 참조하면 된다.

* 올 9월에 열린 뉴욕패션위크(공식명칭 Mercedes-Benz Fashion Week)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mbfashionweek.com를 참조하면 된다.



